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미 현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이 지 인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배 미 현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이 지 인

인 준 서

이지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S시에 소재한 S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다문화 아동 7명으로, 국내에서 출생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로 표집한 후 단일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는 2019년 8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회기당 50분씩 주 2회, 총 12회기로 진행하였다.

음악치료 프로그램 시행 전과 후에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척도와 한국 정서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서 차이를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녹화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행동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관계 하위영역에서는 사회적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정서변화 하위영역에서는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음악치료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 아동의 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의 또래관계 행동 및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적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용어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1. 다문화 아동	10
1) 다문화 아동의 이해	10
2)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15
3) 다문화 아동의 정서	19
2. 다문화 아동과 음악	22
1) 아동과 음악	22
2) 다문화적 음악치료	24
3.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28
1) 타악기의 치료적 사용원리	28
2)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31
III. 연구방법	34
1. 연구대상	34

2. 연구설계	39
3. 측정도구	40
1) 또래관계 척도	40
2) 한국 정서경험 척도	41
3) 행동관찰 평가	42
4. 연구절차	43
5. 음악치료 프로그램	44
6. 자료분석	54
IV. 연구결과	55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55
2.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56
1) 또래관계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56
2) 한국 정서경험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60
3) 음악치료 과정에 나타난 또래관계 행동 및 정서표현 행동관찰 분석 ..	62
V. 결론	74
1. 결론 및 논의	74
2. 제언	7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1>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	12
<표 II-2> 다문화 가정 유형별 학생 수	13
<표 III-1> 연구 대상자	34
<표 III-2>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39
<표 III-3>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40
<표 III-4> 한국 정서경험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42
<표 III-5>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사용악기	45
<표 III-6>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활동 구성 ..	46
<표 III-7>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및 치료적 논거	48
<표 IV-1> 연구 대상자의 특성	55
<표 IV-2> 또래관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57
<표 IV-3> 또래관계 하위영역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	58
<표 IV-4> 정서변화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61
<표 IV-5> 표적 행동 목록	63

그림 목차

<그림 IV-1> 또래관계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57
<그림 IV-2> 사회적지지	59
<그림 IV-3> 처벌주도권	59
<그림 IV-4> 친밀	60
<그림 IV-5> 우의	60
<그림 IV-6> 대립	60
<그림 IV-7>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6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국가 간 자원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경제 활동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 증가,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유입의 가속화를 야기하였다(황재섭, 2011).

통계청(2019)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결혼이민자 인구는 2015년에 약 150만 명, 2018년에 약 159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인구 중 여성이 약 132만 명으로 전체의 83.2%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에 한국 남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의 혼인 비중이 7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9).

한국 사회에 형성된 다문화 가정은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한국 남성과 경제적으로 빈곤한 아시아권 국가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 가정이 약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김수연, 2011; 여성가족부, 2019). 특히 결혼을 목적으로 영구적인 거주를 위해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의 출신 국가는 대부분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인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의 아시아권이다(유승희, 2018).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정부는 2006년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대책 공표를 시작으로 하여, 2007년에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과 2008년에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의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현경자, 2014). 그러나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다문화 가정의 적응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은 사회적 상황의 문화적 갈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유승희, 2018). 결혼이민자 여성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및 해체 등의 외적인 문제와 부정적인 감정 상태,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 심리적 혼란, 소외감 등의 내적인 문제를 겪으며 생활한다(양옥경, 김연수, 2007; 조인주, 현안나, 2012).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부모는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인 다문화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기는 또래와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넓어지고 대인관계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동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또래에게 몰입하는 사회적 특성을 보인다(임한나, 2009). 학교 생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 이외의 사회 구성원인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로 확장되어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문화 아동은 외형적 차이와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타인과의 언어 소통 및 또래관계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심리적 위축과 소외감을 겪게 된다(김수연, 2011). 또한 다문화 아동은 부모의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하여 스트레스, 분노, 무기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다양한 정서적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이혜림, 2016). 개인의 정서적 문제들은 부정적인 정서 형성과 함께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과잉행동 또는 폭력성이 보이는 등의 문제행동으로 나타내게 된다(김지연, 2013). 다문화 아동이 성장 과도기에 해당되는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감정의 혼란과 더불어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환경적 조건으로 인하여 정서·행동의 문제가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정은정, 2017). 따라서 다문화 아동에게 나타나는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나 문제행동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향후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센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적응과 가족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다누리, 2019). 그러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영역에만 치우쳐 있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남부현, 김연이, 2011; 조현상, 2010). 학령기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언어발달 지원, 자녀성장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은 주로 언어 발달 및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회·정서적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9, 송기철, 2013).

다문화 아동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적인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악을 중재수단으로 활용한 음악치료는 치료에 대한 저항심과 심리적 부담을 줄여 주고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직접적인 언어 중심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심리상담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강경선, 2012; 이해주, 2006). 음악 중재는 치료 환경 안에서 아동의 흥미와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과 언어 표현에 취약한 다문화 아동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치료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음악은 아동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로, 비언어적 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안전한 음악적 환경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도한다(Bruscia, 2003). 음악 안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은 성공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대인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발달

을 촉진할 수 있다(Gooding, 2011). Hargreaves, Marshall과 North(2003)는 음악이 타인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작용되며, 사회적 기술과 협동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음악은 외부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체적 반응 유도과 미적인 즐거움, 의사소통의 기능 등 다양한 치료적 기능을 한다(Merriam, 1964). 음악은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적 감정을 미학적으로 표출하도록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정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경선, 2012; 추정엽, 최애나, 2007).

음악의 치료적 특성은 또래관계의 어려움으로 심리적인 위축과 고립감, 정서적 혼란 등을 겪는 다문화 아동이 음악 안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조절과 스트레스를 표출하여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Saarikallio, 2011).

음악치료 중재 방법 중에서 합주 활동은 그룹원들이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끊임없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교류를 경험하게 한다. 합주 활동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타인과의 협동, 상호교류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음악적 환경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합주의 장점을 주장한 연구를 살펴보면, 홍소정(2015)은 합주를 통해서 풍부한 음악적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상락(2014)은 합주 활동이 다양한 소리와 음색이 조화를 이루어 내담자가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합주 활동은 다양한 악기의 소리와 음색이 함께 어우러져 내담자의 음악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타악기를 활용한 합주 활동은 누구나 쉽게 특별한 음악적 기술 없이도 연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거부감이나 부담감 없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일정한 패턴의 리듬을 함께 연주하는 활

등을 통해서 타인과의 음악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Alvin & Warwike, 1978). 타악기 합주 활동은 악기별로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의무와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냄으로써 얻은 결과를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타악기 합주 활동에 활용되는 악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정한 음고가 없는 무율타악기와 정확한 음정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음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유율타악기로 분류된다. 무율타악기는 합주 과정에서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이주선, 2017). 규칙적인 리듬을 통해서 그룹 구성원에게 소속감과 응집력을 느끼게 한다(Bittman et al., 2001). 유율타악기는 고유의 음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각 음정마다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유율타악기는 역할 수행에 따른 책임과 그룹의 기능적 역할을 높일 수 있다(양은정, 2007, 홍민주, 순진이, 2017). 유율타악기를 활용하여 화음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룹 구성원 모두가 음악적 지지와 책임감을 경험하도록 돕는다(김은주, 2015).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또래관계 및 정서변화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선행연구에서 김영은(2016)은 구조화된 타악기 합주활동이 위축아동의 또래관계를 위한 주도 및 협동 행동의 증가와 위축 정도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손은실(2000)은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의 부정적 정서 중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정아영(2014)의 연구에서도 타악기 연주를 통해서 알코올 장애 환자의 스트레스와 정서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고하였다.

타악기를 활용한 합주활동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비경쟁적으로 그룹 안에서 수용과 지지됨으로써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는 다문화 아동에게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문화 가정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무율타악기와 유율타악기를 포함한 다양한 타악기 합주 활동을 활용하여 음악 중재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사회·정서적 접근의 한 방법으로써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향상과 긍정적 정서 증가 및 부정적 정서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하여 사전·사후 비교를 통해 그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척도 검사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2)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한국 정서경험 척도 검사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 3)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치료 상황에서 나타난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4)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치료 상황에서 나타난 다문화 아동의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정의

1) 다문화 아동

다문화 아동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의 자녀로(교육부, 2019), 재한외국인을 의미하는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과 혼인관계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태어난 24세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법제처, 2017). 다문화 아동은 다문화 가정 유형과 동일하게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 새터민가정 아동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형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아시아권 출신의 결혼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국내 출생한 자녀이며,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11-13세의 아동’으로 정의한다.

2) 또래관계 행동

또래는 친구와 같은 연령이나 수준이 비슷한 타인을 말하며, 또래관계는 상호작용을 통해 맺어지는 수평적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정미경, 2002).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호교류 및 협동을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형성되는 관계’로 정의한다. 또한 또래관계 행동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양보하기, 배려하기, 공감하기, 소통하기 등과 같은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 및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한다.

3) 정서표현 행동

정서는 주관적 경험이나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한 느낌이나 지속적인 감정을 의미한다(김제한, 공석영, 김충기, 1980). 정서표현은 내면의 감정이나 자신이 경험한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으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감정이나 정서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서표현 행동으로 정의하고, 긍정적 정서변화를 유도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으로 제한한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은 ‘타악기 중심의 그룹 음악치료 상황에서 경험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4) 타악기 합주 중심 음악치료

합주는 여러 사람이 함께 연주하는 활동으로, 타인과의 협동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타악기 합주는 일정한 음고가 없는 무울타악기와 일정한 음고가 있는 유울타악기를 사용하여 그룹 형태로 진행되는 음악 활동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타악기 합주는 ‘무울타악기와 유울타악기를 활용하여 공동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협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리듬, 선율, 화음연주 형태의 음악치료 활동’으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아동

1) 다문화 아동의 이해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박순희, 2009). 또한 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 혹은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한다(법제처, 2017). 즉, 한국인과 상이한 민족적·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 함께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교육부, 2019).

다문화 가정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며 이루어진 ‘외국인근로자 가정’, 탈북한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 가정’ 등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조원탁 등, 2014). 이와 같은 형태의 가정들은 2000년대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문화가 한 가족 내에서 공존한다는 의미를 지닌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가정’, ‘혼혈인가정’ 등의 용어들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가 전달하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를 권장하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은경, 2010).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추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에 급증한 국제결혼이 본격화되면서 지속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의 경우, 남녀 성비의 불균형 현상과 고학력 전문직종 여성의 증가,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농촌 및 도시지역의 노동자계층 남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열악한 입장에 처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도록 작용하게 되었다(김기현, 2010). 그리고 결혼이민을 통해서 경제적인 빈곤을 탈출하기 위한 방안으로(이애련, 2015), 결혼이민자 여성이 농촌총각이나 도시 하류층 남성 또는 재혼 남성의 결혼상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최운선, 2007).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입장이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2018년도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과의 결혼은 22,698건으로 전년도 20,835건에 비해서 8.9%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19).

다문화 가정 가운데 국제결혼과 동시에 한국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의사소통의 어려움, 가치관의 혼란, 소외감 등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황재섭, 2011). 또한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다른 문화권의 생활양식, 경제적 기대의 상실, 가족 내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 부부갈등과 가정폭력, 사회의 편견과 차별, 인식부재,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한 위치에 놓여 있다(최운선, 2007).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부모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은 그들의 자녀들, 즉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비슷한 양상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다문화 아동’은 다문화 가정의 유형과 동일하게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외국인근로자가정 아동’, ‘새터민가정 아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문화 아동의 정책적 정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혹은 결혼이민자와 한국 국적의 내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24세 이하인 자녀이다(법제처, 2017). 일반적으로 다문화 아동은 결혼이민자가

정 유형의 아동을 지칭하며,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중 결혼이민자가정 유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통계청, 2019)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아동은 문화적 차이와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한국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김해은, 2013). 특히 다문화 아동들은 태생적으로 언어와 풍습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된다(신혜정, 2007). 또래친구들의 일반 가정과는 달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으로, 이중문화와 이중언어라는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진금남, 2014). 그러므로 다문화 아동은 태어남과 동시에 다문화 가정 안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을 안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김해은, 2013).

교육부(2019)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의 전체 학생수는 2015년 82,536명에서 2019년 137,225명으로 증가하여, 2012년 조사 시행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매년 약 18만 명씩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 이는 전체 학생 대비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다문화 학생 수와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에 대한 현황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

연도		2015	2017	2019
다문화 학생 수(명)	초등학교	60,162	82,733	103,881
	중학교	13,827	15,945	21,693
	고등학교	8,146	10,334	11,234
	각종학교	401	375	417
	계	82,536	109,387	137,225

다문화 학생 비율(%)	초등학교	2.2	3.1	3.8
	중학교	0.9	1.2	1.7
	고등학교	0.5	0.6	0.8
	계	1.4	1.9	2.5

출처: 교육부(2019)

교육통계서비스(2019) 자료에 제시된 다문화 가정 유형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보다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월등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 학생 비율은 국내출생이 78.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국인가정 14.9%, 중도입국 6.3%로 나타났다. 각 다문화 가정 유형별 학생 수는 <표 II-2>와 같다.

<표 II-2> 다문화 가정 유형별 학생 수

연도		2015	2017	2019
다문화 가정 유형별 학생수(명)	국내출생	68,099	89,314	108,069
	중도입국	6,261	7,792	8,697
	외국인가정	8,176	12,281	20,459
	계	82,536	109,387	137,225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19)

이처럼 국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다문화 아동의 비율은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문화 아동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들(강지현, 여태철, 김재철, 김지현, 임진영, 2013; 변미희, 정은미, 정희정, 이송이, 2011; 이상호, 김대균, 박균열, 2015; 이애련, 2015; 천호성, 박계숙, 2012)을 통해 검토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학습부진과 학교 부적응이 나타난다. 다문화 아동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의 양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게 된다(조원탁 등, 2014). 이러한 한국어 능력 부족이 학교생활에서의 학습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작용되며, 전문화된 어휘와 문어 능력을 요구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이해력 부족으로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상호 등, 2015).

둘째, 가정 내의 이중문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다문화 아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다른 양육방식으로부터 오는 혼란이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중문화에 대한 부적응을 가중시킨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출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의 자녀라는 이유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현, 이승은, 2007).

셋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서 교육기회의 소외와 가족의 돌봄과 유지 역할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다문화 가정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한국 남성과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구성되는데,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맞벌이를 할 가능성을 높게 된다(강지현 등, 2013). 특히 다문화 아동은 가정의 빈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며, 방치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이다(천호성, 박계숙, 2012).

넷째, 상이한 피부색과 외모 차이에 따른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고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아동의 33.4%가 집단따돌림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가정형편이 열악하다, 부모가 외국인이다,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다’라는 이유 등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여

성가족부, 2019). 또한 박상철, 윤희원과 조영달(2007)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의 주된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정된 요인과 본인의 노력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로 또래집단으로부터 배척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정서적 충격과 함께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2)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또래관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Hartup(1992)은 ‘서로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평등주의적 관계로 이해되는 개념으로 관심이 나 흥미를 공유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애착관계’라고 정의하였다. Furman과 Buhrmester(1985)는 ‘애정과 안정, 친밀한 관계로 구성되어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제한(1982)은 ‘두 명 이상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양방향의 사회적 관계로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대등한 입장에서의 비형식적이고 사회적 공감대의 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래 간의 상호성과 동등성에 의해서 협동적으로 협의된 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정미경, 2002) 혼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상호의존을 하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이고 양방향성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학교라는 사회적인 환경 안에서 또래를 만나고 관계형성을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며 또래집단과의 유대감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Gowing, 2019; Gowing, Jackson, 2016). 또한 또래관계를 통해 상호 존중과 평등의 개념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배워 성장을 돕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한다(송영혜, 윤지현, 2004). 이와 함께 아동에게 또래관계 형성과 또래집단 내에 수용되는 경험은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유안진, 2000). 특히 학령 후기에는 또래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증하게 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임은실, 김현수, 2019). 이와 같이 아동의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임을 알 수 있으며, 초기의 또래관계의 경험이 이후에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거쳐 대인관계 확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아동을 일반 아동과 비교할 때, ‘다문화’라는 특수한 가족적 배경을 가진 가정환경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사소통과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타인과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박순희, 2009). 또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다문화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자신감 결여 및 또래관계와 관련한 기술의 부재로 이어진다(오성배, 2005). 이외에도 상이한 외모와 피부색으로 인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은 심리적 위축과 자신감 상실을 초래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김혜정, 유진이, 2009; 이소희, 이선희, 2013). 그러므로 다문화 아동은 고립감과 위축감,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고(채유경, 2004), 갈등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이은희, 이경옥, 2013). 그리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 소외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어 다문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심리사회적 적응을 저해한다(김순규, 2011).

특히 아동기의 또래관계는 신체적이고 정서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며 가족에서 또래집단으로 몰두하게 되며 책임감 있고 협력적인 사회행동을 발달시키는 시기로서 또래나 타인으로부터 심리적·사회적 지지를 통해 향상된다(박순희, 2009). 또한 가족 및 또래와 같은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아동기의 성격형성과 또래관계에서 더나

아가 대인관계 영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박점자, 2015) 아동기의 올바른 또래관계 형성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기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또래관계를 잘하는 아동은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집단 내 소속감과 유대감을 통해서 학교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유설희, 2013). 또한 또래집단에서 수용되는 정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이와 반대로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아동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기관점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장윤정, 신유림, 2010).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황선영과 고재욱(2013)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에 비해 다문화 아동이 따돌림 경험이 많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거나 학교부적응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은희와 이경옥(2013)은 또래관계에서 따돌림 혹은 거부당하는 경험이 다문화 아동의 공격적·적대적·충동적인 특성을 지니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가진 위축된 다문화 아동은 수동적이고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서투르며,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과 소외, 차별 등의 경험은 학교부적응, 학업중단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더불어 성인기의 사회부적응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김화성, 유형근과 남순임(2014)은 다문화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고안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춘자(2012)는 활동중심의 집단상담이 다문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친사회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하여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의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경미와 이은주(2018)는 미술치료를 통한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하늘(2014)은 점토를 이용한 미술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변화와 질적 분석을 통해 또래관계를 위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주장하였다. 박선희(2010)와 이보람(2018)은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와 또래관계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미술, 연극, 놀이, 무용·동작 등의 예술매체를 두 가지 이상 사용하여 통합적 형태의 예술치료를 의미하는 표현예술치료의 경우,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입증하였다(강은아, 2018; 이경훈, 2018).

이와 같이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는 개인의 올바른 성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아동이 학교와 또래집단과 같은 환경에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기 때문에 올바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3) 다문화 아동의 정서

‘정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정서는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로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하여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을 의미’한다(김제한, 공석영, 김충기, 1980; 전영희, 2010). Lazarus(1991)는 ‘개인의 심리·사회·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며, 환경으로부터 인간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두 가지의 범주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할 수 있다(Watson & Tellegen, 1985). Arnold(1960)는 유기체가 대상을 유익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 긍정적 정서이고, 유해하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 부정적 정서라고 정의하였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서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며(Watson & Clark, 1984), 원하는 자극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정서가 긍정적 정서이고, 원하지 않는 자극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생기는 정서를 부정적 정서라고 구분할 수 있다(강갑원, 1993). 결국 긍정적 정서는 즐거움과 행복, 보람 등과 같이 유쾌한 정서나 감정을 의미하며, 이와 반대로 두려움과 분노, 우울과 같은 불쾌한 정서나 감정은 부정적 정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가 높다는 것은 환경과의 유쾌한 상호작용, 충분한 집중, 원기가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부정적 정서가 높으면 혐오적인 기분상태나 주관적 혼란을 많이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서승연, 2018).

이와 같은 정서의 중요성을 주장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는 개인의 안녕감과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부정적 정서는 그와 반대의 작용을 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였다(조은향, 2009). 또한 긍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사회 환경에 적응적이며 창조적이고 지적이며 심리적으로

도 건강한 일환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Fredrickson, 2001). 반면에 부정적 정서가 강한 사람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면적 문제와 함께 외현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안정하, 조옥귀, 2002). 따라서, 개인의 내적 성장과 안녕을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 정서를 고양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성, 2003).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해당된 정서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에는 기쁨, 행복감, 즐거움, 친밀감 등이 포함되며(장정주, 2015), 부정적 정서에는 우울, 불안, 슬픔, 분노, 두려움, 신경질, 적개심, 죄책감 등이 포함된다(이선미, 2010).

정서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아동기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서 학교라는 변화를 겪는 시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발달상의 과업을 달성해야한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서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남민, 조수철, 1994).

일반 아동의 아동기의 일반적인 정서적 변화와 비교해보면, 다문화 아동은 다른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심리·사회적 위기에 노출된다.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 다문화 아동의 정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아동은 가정 내의 갈등 및 마찰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정서적 위기를 경험한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의 평균 연령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통계청, 2019), 남편의 연령은 45세 이상인 경우가 2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아내의 연령은 20대 후반이 2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78.2%가 남편 연상부부에 해당되며,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가 40.9%로 다문화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19). 김오남(2006)은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의 갈등 빈도와 강도가 일반가정 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다문화 아동은 일반 아동과는 다른 외모와 피부색, 차별에 대한 상처, 소극적인 또래관계,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고립감을 경험한다. 또래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신감 결여와 의욕상실과 감정표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표출하여 정서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김경미, 이은주, 2018). 또한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는 차별 경험은 다문화 아동의 외현화 또는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나타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공격적이고 갈등수준이 높으며 부정적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해능력이 낮아서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내면화된 행동문제는 수동적이고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고 위축하게 된다(김지연, 2013). 다문화 아동의 정서적 특징에 대한 연구에서 이원령(2013)은 다문화 아동이 일반 아동보다 우울과 불안, 두려움, 과잉행동이 높게 나타나며 고학년이 될수록 내재화 문제가 더 높게 나타나고, 특히 정서적으로 우울과 불안보다 위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다문화 아동의 부정적 정서 감소 및 긍정적 정서 증가를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채윤(2014)은 다문화 아동의 정서순화를 위한 개입으로 집단 미술치료를 진행한 결과, 억압된 내면의 정서와 스트레스 등의 완화와 해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조수경(2017)의 미술치료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불안과 우울, 위축 등의 부정적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높은 수준의 불안감, 긴장감, 위축감 등의

부정적 정서 감소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최선진(2017)의 미술치료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중에 불안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황수현(2015)은 부정적 정서 중에 스트레스의 감소를 입증한 미술치료 연구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표현예술치료의 경우, 정서표현 활성화와 스트레스 완화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집단예술치료가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 문제인 위축, 불안, 우울 등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주장하였다(서현희, 2009). 그리고 무용과 동작을 활용한 심리치료에서도 다문화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김효원, 2019). 이와 같이 다문화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를 이해하고 발달시키게 된다. 다문화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부정적 정서 감소 및 긍정적 정서 함양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2. 다문화 아동과 음악

1) 아동과 음악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자장가’라는 노래를 통해 음악과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음악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전 생애동안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긴장상태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Medeiros, Porter & Welch, 1983), 음악은 발달상 민감한 시기에 있는 아동의 긴장완화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되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정애, 2013). 음악을 통한 여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동들은 발달 영역별로 다양한 기술이 향상되며, 음악적 환경이 아동들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이미경, 2006). 특히 음악은 타인에게 의사소통과 표현을 하는 도구로써(Boxil, 1985),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소통을 경험하는데 도움을 준다(신아정, 2015). 이러한 음악의 특성은 다양한 예술 매체 중 음악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매체로 아동들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용한 치료적 도구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음악이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김하영(2012)은 음악 감상이 아동의 스트레스와 불안, 충동성 감소와 정서적 안정 및 집중력 향상을 돕는다고 하였다. 최애나(2012)는 노래 가창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작용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 향상과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주선(2017)은 악기 연주가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감소와 또래관계 향상을 돕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서 아동에게 긍정적으로 도움이 주어 적합한 치료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들에서 주로 적용하는 음악활동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음악 감상’, ‘노래 가창’, ‘악기 연주’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김영은, 2016; 김지현, 2017; 정진희, 정규진, 최애나, 2015; 조은지, 2017; 최진영, 2015), 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감상’은 아동들이 가장 쉽게 음악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음악 감상을 통해서 아동은 기분전환과 정서적 환기를 도와 긴장 이완의 상태를 형성하여 감상자로서 유용한 활동이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아동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 감상이 가능한 환

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김시연, 2016; 류세인, 조인숙, 2015).

둘째, ‘노래 가창’은 아동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탐색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선율, 리듬을 사용하여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Bruscia, 2000). 또한 자신의 모습을 노래 가사에 대입하여 표현함으로써 내적인 심정을 표출하여(김미향, 2005), 다양한 감각과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다.

셋째, ‘악기 연주’는 아동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것이다. 악기 연주는 음악 감상과 노래 가창보다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활동으로, 악기를 사용하여 아동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직접 연주함으로써 즐거움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악기를 활용한 연주활동의 경우, 아동의 정서 발달과 관련하여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도움을 준다.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협동심과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조정은, 2010), 함께 연주하는 과정에서 소속감, 유대감, 만족감, 성취감 등의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유행하는 음악을 함께 접하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여(송주승, 정혜명, 2010), 자신만의 유대집단 내에서 안정감을 얻고 그들만의 가치를 표현적으로 나타내고 분출, 해소하는 도구의 기능을 한다(신아정, 2015).

2) 다문화적 음악치료

‘다문화적 음악치료(Multicultural Music Therapy)’란 다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와의 음악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치료적 접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Moreno, 1988). 음악은 다양한 문화적 형태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Radocy & Boyle, 1988) 다문화적 현상에 맞추어 내담자의 문화적 요소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Stige, 2002).

다문화적 음악치료의 대상인 다문화 아동은 이중문화라는 특수한 배경의 가정환경과 상이한 외모와 피부색 차이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또래관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우울, 불안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음악은 기쁨, 즐거움, 놀람, 슬픔,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억눌린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Radocy & Boyle, 1997).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음악 활동을 통해서 긴장 완화와 카타르시스를 경험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다(Burns, 2001).

국내외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외에서는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국외의 다문화 관련 음악치료 연구를 살펴보면, 주제에 따라서 크게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Choi, 2010; Jespersen & Vuust, 2012; Kennedy & Scott, 2005)와 ‘다문화에 대한 음악치료사의 인식 및 역량’(Chase, 2003; Darrow & Molloy, 1998; Grimmer & Schwantes 2018; Sloss, 1996; Topozada, 1995)과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의 고려’(Froman, 2009; Rilinger, 2011)등과 관련된 연구이다.

Kennedy와 Scott(2005)는 노래와 찬트 부르기, 음악 감상, 리듬연주활동, 동작활동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이 다문화 청소년의 말하기 능력에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Choi(2010)는 불안, 두려움, 상실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과 가족과의 분리, 학습과 적응에 대한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가진 새터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들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되고 사회적 적응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Jespersen와 Vuust(2012)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는 새터민을 대상으로

이완 음악 감상 활동을 통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 다문화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며, 이외에도 음악치료사 인식과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loss(1996)와 Grimmer와 Schwantes(2018)의 연구에서도 음악치료사의 다문화적 역량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Chase(2003)는 특히 자신의 문화적 견해와 태도를 탐구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인식과 전문적인 역량 개발을 위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음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였으며(Toppozada, 1995), 음악치료사의 인식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Darrow & Molloy, 1998). 더불어 음악치료 환경에서의 문화적 영향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문화적·종교적 배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음악치료 정보를 함께 제공하였다(Froman, 2009; Rilinger, 2011).

국내 다문화 관련 음악치료 연구를 살펴보면, 2008년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 2018년까지 11년 동안 총 55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이 중 21편의 연구가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이지인, 2019). 특히 다문화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 중 언어영역과 사회·정서영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문화 아동의 영역별로 음악치료 효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영역에서의 연구는 미취학 아동이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손솔이, 2017;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조은지, 2017; 최애나, 2012; 최진영, 2015). 이는 아동기에 언어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음악중재를 통한 언어발달 및 언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아동의 언어영역과 관련된 음악활동을 살펴보면, 노래 중심의 활동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 아동의 사회·정서영역의 음악치료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은선(2011)은 노래 가창과 악기 연주의 음악활동을 통해서 언어적·감정적 자기표현력 증진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윤선영과 강경선(2016)은 노래심리치료를 통해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오선화, 황은영과 전유미(2016)는 노래, 악기, 동작 등의 다양한 음악활동이 다문화 아동의 자아개념의 긍정적인 변화와 우울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성한나와 김영신(2017)은 음악극 창작 활동이 다문화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음악치료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아동의 언어적 발달을 위해 진행된 음악치료 중재의 대부분은 노래 가창 활동을 하였으며,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는 악기 연주 활동이 주로 사용되었다(박민정, 2014; 이지인, 2019). 특히 악기 연주는 음악 안에서의 자유로운 표출을 도와서 다문화 아동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한다. 또한 악기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자유롭게 표현함과 동시에 기쁨과 보람, 즐거움 등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홍민주, 순진이, 2017). 이와 같은 음악적 경험은 다문화 아동에게 만족감을 통한 성취감과 음악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래관계의 개선 및 역량 강화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3.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1) 타악기의 치료적 사용원리

‘타악기’란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악기의 몸체를 두드리거나 흔들거나 문지르는 등의 연주방법을 통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한다. 타악기는 가죽, 금속, 나무 등의 다양한 소재에 따라서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악기를 구성하고 있는 재질과 크기, 구조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음색과 음량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소재에 따라 소리 내는 방법도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타악기는 음악적 배경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연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이다(장빛나, 김수지, 2009).

신체를 사용하여 타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음악의 강도와 역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악적 활동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최병철, 2006). 이와 함께 타악기는 비언어적 소통의 도구로 기능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통해 타인과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Bruscia, 2003). 또한 타악기의 두드림을 통해서 아픔, 슬픔, 괴로움,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과 기쁨, 즐거움, 행복 등의 긍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중요한 경험으로 작용될 수 있다(하은경, 2004). 이와 같이 타악기를 활용한 음악활동은 자신의 감정표현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형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돕는 역할(공미라, 2012)을 한다. 또한 정서를 자극하고 이완시키며 부적절한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Boxill, 1985)을 하기 때문에, 타악기의 연주가 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악기는 크게 고정된 음높이가 없는 ‘무율타악기’와 고정된 음높이가 있는 ‘유율타악기’로 구분된다. 먼저 무율타악기의 경우, 일정한 음고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북, 튜바노, 줌베, 콩가, 봉고, 게더링 드럼, 페들 드럼, 버팔로 드럼, 심벌즈, 탬버린, 카바사, 카우벨, 아고고벨,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귀로, 우드블럭, 셰이커 등이 있다. 그리고 유율타악기의 경우, 일정한 높이의 음고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팀파니, 실로폰, 핸드벨, 자일로폰, 비브라폰, 마림바, 글로켄슈빌, 톤차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무율타악기와 유율타악기의 치료적 환경 안에서의 적용은 내담자의 임상적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무율타악기는 주로 리듬합주, 난타, 드럼서클(Drum Circle), 타악기 즉흥연주의 형태로 사용되며, 유율타악기는 주로 두 명 이상의 화음합주의 형태로 사용된다(이다혜, 2019).

먼저 무율타악기의 치료적 특성을 살펴보면, 무율타악기 연주의 바탕이 되는 음악적 요소는 ‘리듬’의 작용이다. 리듬이 없는 음악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Bruscia, 1998), 리듬은 음악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 진행과 변화의 과정에서 음악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서승연, 2018). 또한 음악 안에서 리듬의 역할은 규칙적·연속적 움직임으로 안정된 구조와 질서를 제공하고, 에너지를 유발하는 힘과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Thaut, 2009).

무율타악기의 연주 경험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움을 주며, 감정의 해소 뿐만 아니라 카타르시스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강경선, 2009; 공미라, 2012). 특히 내면의 문제와 억압된 감정들을 타악기를 통해 외부로 표출시킴으로써 우울, 불안,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강경선, 2009). 이외에도 인간은 필수적으로 호흡과 맥박이라는 일정한 생체리듬을 갖게 되는데, 이와 함께 일정하게 연주되는 리듬은 안정감과 평온함을 줄

수 있으며, 빠른 속도로 연주되는 리듬은 내담자의 에너지를 높여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정현주, 2011; Bruscia, 1998).

유율타악기의 치료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율타악기 연주의 바탕이 되는 음악적 요소는 ‘선율과 화음’의 작용이다. 유율타악기의 경우 주로 두 명 이상의 그룹원이 함께 화음을 이루어 연주하게 되는데, 음악적 맥락 안에서의 선율, 화음, 조성 등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 가능성의 기회를 제공한다(양은정, 2007). 그리고 개인의 내면을 자극하여 탐색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배은영, 2008). 또한 화음연주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게 하여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며, 타인과 공유하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경험함으로써 음악적 교류를 사회적 교류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유율타악기의 연주 경험은 선율 연주에서 화음 연주로의 확장을 통해서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악적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율과 화음을 중심으로 하나의 음악을 함께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룹의 성취와 협동심을 갖도록 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과 수용 및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홍민주, 순진이, 2017).

이와 같이 음악 중재 안에서 무율타악기 연주와 유율타악기 연주의 결합은 내담자에게 리듬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선율의 흐름이 감정을 자극하여 음악적 풍성함을 제공할 수 있다(김지현, 2017). 따라서 타악기가 가진 치료적 특성이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를 부여하고, 내면의 정서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자기탐색과 자기인식,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룹 안에서 협동심과 비언어적 상호교류를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회·정서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치료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2)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합주’란 두 명 이상의 내담자가 참여하는 그룹 형태로 이루어지는 악기 연주 활동을 의미한다. 합주의 형태는 주로 기존의 음악을 연주하는 방식의 재창조 연주와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여 연주하는 방식의 즉흥연주로 구분한다. 합주 악기의 구성은 임상적 목적에 따라서 단일적이거나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합주의 치료적 특성을 살펴보면, 합주 활동은 그룹으로 이루어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끊임없이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정서적 교류를 경험하게 한다. 또한 합주는 하나의 작은 사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음악적 환경 안에서 타인과의 협동과 상호교류,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합주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지지는 활동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을 줄일 수 있으며, 연주의 성공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적극적으로 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한다(이기윤, 2017).

이외에도 합주 형태의 그룹 치료에서는 그룹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므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George & Dustin, 1988). 뿐만 아니라 그룹원과의 합주를 통해서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집단의 응집력과 협동심, 역동성 등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만족과 성취를 얻게 된다(양은정, 2007; 홍민주, 순진이, 2017). 이와 함께 그룹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소속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이민형, 2019), 구성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적절한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김선하, 2009).

이와 같은 측면에서 타악기 합주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들의 관계적인 효과성을 살펴보면, 아동에서 청소년, 성인 등의 다양한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지현(2017)은 리듬밴드, 난타, 타악기 즉흥연주, 드럼서클 등의 다양한 타악기 합주 활동을 통해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 향상에 통계적인 차이를 입증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하였다. 이지은과 문소영(2017)은 구조화 및 비구조화된 타악기 음악활동을 통해서 재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경민(2015)은 그룹 타악기 리듬 합주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조현병 성인의 대인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와 효과적인 중재방법임을 입증하였다. 이다혜(2019)는 타악기 합주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도록 하여 조현병 성인의 대인관계와 사회기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유희타악기를 활용한 합주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도(박민정 2019; 손미나, 2015; 양은정, 2007; 전수현, 2018; 정진희, 정규진, 최애나, 2015; 홍민주, 순진이, 2017) 자기인식, 자기표현,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사회성 향상 등의 심리·사회적 관련 변인들 간의 긍정적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외에도 타악기 합주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들의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살펴보면, 이덕조(2003)는 타악기를 활용한 음악활동이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손은실(2000)과 정아영(2014)의 연구에서도 타악기 연주 활동이 알코올 환자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감소로 정서변화에 효과를 나타냈음을 입증하였다.

현재까지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악치료 선행연구들은 노래를 활용한 연구와 악기를 활용한 연구, 음악극을 활용한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노래 및 음악극을 활용한 연구들은 언어적 발달 또는 자기표현, 사회성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으며(김은선 2011; 성한나, 김영신, 2017; 손솔이, 2017; 윤선영, 강경선, 2016;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이슬지, 2011; 정현정, 2009; 조은지, 2017; 최애나, 2012; 최진영, 2015; 황혜진, 2014), 악기를 활용

한 연구들은 사회·정서적 발달과 또래관계 향상을 위해 진행되었다(정태미, 2010). 악기를 활용한 선행연구들 중 연구대상이 다문화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유지아, 2016; 이기윤, 2017, 홍민주, 순진이, 2017)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언어·의사소통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정서 영역을 위한 음악치료를 활용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는 다문화 아동에게 또래관계 및 정서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재 방법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의 건강한 사회·정서적 발달과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중재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에 소재한 S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1세-13세의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총 7명(남자 2명, 여자 5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국내 출생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동,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 결혼이민자 모친의 출신국이 아시아권인 아동, 의사소통 및 읽고 쓰기에 이상이 없는 아동으로 제한하여 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표 Ⅲ-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별로 가정환경의 특징과 또래 관계 및 감정·정서표현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을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1> 연구 대상자

대상	성별	연령	어머니 국적
A	여	11세	베트남
B	여	11세	베트남
C	남	11세	베트남
D	남	11세	파키스탄
E	여	12세	베트남
F	여	13세	베트남
G	여	13세	베트남

(1) 대상자 A의 특성

대상자 A는 11세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 자매 중 둘째로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어리광을 심하게 부리는 편이다. 또래관계 측면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애교도 많고 친절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호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이며 짜증을 많이 표현하는 편이다. 성격적인 면에서 쾌활한 편으로 센터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고, 여자 아동들보다는 남자 아동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이다. 감정 및 정서표현에서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고집을 피우며 어리광을 부리는 모습을 보인다. 마음이 한 번 토라지면 눈물을 보이며 서운함을 표현한다. 둘째로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애정 욕구가 강하며, 어리광을 심하게 부리는 편이다. 자신의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이 난 경우에는 타인을 괴롭히며 욕설을 작게 읊어서 감정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2) 대상자 B의 특성

대상자 B는 11세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모, 사촌 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들이 아동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며 아낌없이 지원하는 편이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촌 동생을 자신의 친동생처럼 여기며 화목하게 잘 지내는 편이다. 또래관계 측면에서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편이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고 할 정도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없다. 친구 사이에서 마음이 상

하고 상처를 받으면 크게 토라져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감정 및 정서표현에서는 기분이 좋을 때는 친구들이 장난을 쳐도 받아주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사소한 말과 행동에 서운함을 강하게 표현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인다. 또래로부터 마음이 상하면 감정을 추스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오래가는 편이다. 자신의 감정을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눈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SNS 메시지로 표현하는 편이다.

(3) 대상자 C의 특성

대상자 C는 11세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부모와 누나와 거주 중으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사이가 좋은 편이지만, 누나에게 의지하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누나에게 맡기며 생활하는 편이다. 또래관계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목소리가 가늘고 작아서 또래친구들과 동생들 사이에서 애기 취급을 받으며 지내는 편이었으나 현재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또래와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인다. 또래에게 양보도 잘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인기가 좋은 편이다. 감정 및 정서표현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편이지만, 화가 나면 단호한 얼굴 표정과 함께 큰소리로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는 경향이 있다. 또래친구들에게는 잘 표현을 못하지만, 누나한테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4) 대상자 D의 특성

대상자 D는 11세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부모와 삼촌, 동생 두 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첫째로서 동생을 챙겨야하는 책임

감 때문에 동생을 다소 귀찮아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또래관계 측면에서는 운동신경이 좋고 친구들과 활동적인 놀이를 좋아하며, 놀이과정에서 친구들에게 설명을 잘해주는 편이다. 가끔 게임이나 활동을 하다가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어 다투는 경우가 발생되지만, 친구들과 원만하게 잘 어울리는 편이다. 감정 및 정서표현에서는 장난이 심하고 과도한 장난으로 주변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는 일체 표현하지 않는다.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 하지 않고, 동일하게 3번 이상을 질문을 해야 간단한 문장의 대답을 할 정도의 표현을 하는 편이다.

(5) 대상자 E의 특성

대상자 E는 12세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하다가 재혼을 통해 새 아버지를 만나 동생이 태어난 후 심리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이었으나 현재는 동생을 굉장히 잘 챙기고 예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다소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사랑을 많이 바라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또래관계 측면에서는 또래는 철이 없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동갑인 친구들과는 유대관계가 전혀 없으며, 언니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감정 및 정서표현에서는 타인에게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편이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과할 정도로 애교를 보이며, 큰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기분이 좋음을 표출한다. 그러나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말을 아예 하지 않으며,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혼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6) 대상자 F의 특성

대상자 F는 13세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부모님과 동생 2명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이 아동을 잘 챙겨주며 아동도 잘 따르는 편이나 가정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래관계 측면에서는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또래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주로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또래들과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학교에서도 주로 베트남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하였다. 또래 여학생 보다는 남자 동생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고,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알아듣고 어울리는 편이다. 감정 및 정서표현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얼굴에 드러나는 편이지만,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난 후에 기분이 풀리고 자신의 감정이 진정이 된 후에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평소에는 자기표현을 전혀 하지 않지만, 활동적인 놀이에서는 승부욕이 강하여 짧은 단어를 사용하여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표현하는 편이다.

(7) 대상자 G의 특성

대상자 G는 13세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부모님과 동생 2명이 있으며, 겉으로는 가족 간의 사이가 원만해보이지만 가정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서 동생들을 챙겨야하는 압박감이 있는 듯 하며, 동생과 자주 다투는 모습이 보이지만 동생들을 잘 챙겨주며 특히 막내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인다. 또래관계 측면에서는 지역 아동센터 내에서 한 아동과만 어울리며, 그 아동과 학교에서도 단짝처럼 붙어 다닐 정도로 친한 관계이다. 또래 사이에서 겉도는 느낌을 받으며 다른

또래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편이다. 감정 및 정서표현에서는 조용하고 서운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표출하기 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며, 말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을 SNS 메시지 등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다.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The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사용하였다. 사전검사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시작 전에 동일한 환경에서 실시하였고, 사후검사는 음악치료 프로그램 종료 후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

집단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O ₂

X: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O₁: 사전검사(또래관계 척도, 한국 정서경험 척도)

O₂: 사후검사(또래관계 척도, 한국 정서경험 척도)

3. 측정도구

1) 또래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또래관계 척도(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 NRI)를 박인숙과 이현림(2008)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영역은 사회적지지(17문항), 처벌주도권(5문항), 친밀(5문항), 우의(3문항), 대립(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3문항이다. 본 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최저 33점부터 최고 165점으로 구성되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33문항 중 8문항은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으로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박인숙과 이현림(2008)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3 이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α .79-.89 범위로 나타났다.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또래관계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번호	Cronbach's α
사회적지지	3, 4, 6, 7, 9, 11, 14, 15, 17, 18, 20, 22, 25, 26, 29, 31, 33	.89
처벌주도권	8*, 19*, 21*, 30*, 32*	.81
친밀	5, 10, 16, 27, 28	.79

우의	1, 12, 23	.85
대립	2*, 13*, 24*	.82
전체		.83

출처: 박인숙, 이현림(2008)

*는 역채점 문항을 나타냄.

2) 한국 정서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정서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의 절차와 방법을 근간으로 하여 홍창희(2004)가 개발한 한국 정서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단어로 번안, 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지선, 채드 에베수타니, 윤석영과 노은정(2019)이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신뢰도 및 성별에 따른 동일성 검증으로 타당화한 검사 도구이다.

한국 정서경험 척도의 하위영역은 정적정서(11문항), 부적정서(11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이다. 본 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이며,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보통 그렇다', 4점 '많이 그렇다', 5점 '매우 많이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하위영역별로 각각 최소 11점부터 최고 55점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평소에 자신이 느끼는 정서 경험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창희(2004)의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정적 정서는 Cronbach's α .83 이었으며, 부적 정서는 Cronbach's α .76 으로 나타났다. 이지선 등(2019)이 아동 및 청소년용으로 타당화한 연구에서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정적정서는 Cronbach's α .89 이었으며, 부적 정서는 Cronbach's α .90 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서경험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한국 정서경험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번호	Cronbach's α
정적정서	1, 2, 3, 4, 5, 6, 7, 8, 9, 10, 11	.89
부적정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90

출처: 이지선, 채드 에베수타니, 윤석영, 노은정(2019)

3) 행동관찰 평가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행동 및 정서표현 행동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동관찰 기록법 중 빈도 기록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행동관찰 기록법(Abservational Recording System)이란 내담자의 변화를 측정하고자 행동관찰 및 데이터 수집을 하는 것으로, 행동주의를 바탕으로 인지 행동주의나 응용행동분석에서 행동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해당하는 또래관계 행동 및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의 발생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빈도기록법을 사용하였다. 빈도기록법(Frequency Recording)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빈도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발생한 횟수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를 알아보하고자 하는데 관찰의 목적이 있다(황해익, 최혜진, 정혜영, 권유선, 2014). 매 회기마다 녹화한 영상 자료를 토대로 행동관찰 기록지 양식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표적행동(Target Behavior) 발생 시마다 즉각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대상자별로 상황에 대한 행동을 상세하게 묘사하거나 언어적 표현을 인용하여 질적인 변화에 대한 행동 특성을 요약하였다(행동관찰 기록지 양식 부록참조).

4. 연구절차

1)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및 설문조사

본 연구의 대상자인 다문화 아동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역아동센터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비밀 보장과 연구 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수거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 가족관계, 부모 연령 및 직업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사전 검사

또래관계 척도와 한국 정서경험 척도에 대한 사전검사는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인 2019년 8월 12일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연구자와 사회복지사 1명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내의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되었다.

3) 실험과 행동관찰

본 연구의 실험은 사전검사에 이어 2019년 8월 22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주 2회, 총 12회기로 실시되었다. 실험은 매 회기 당 50분씩 지역아동센터 내의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매 회기마다 행동관찰을 통해서 또

래사이에서의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과 긍정적 감정표현을 각각 행동별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관련 행동 예시와 언어적 표현을 기록하였다.

4) 사후검사

또래관계 척도와 한국 정서경험 척도에 대한 사후검사는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인 2019년 9월 30일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배포되어 연구자와 사회복지사 1명에 의하여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5. 음악치료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활동을 초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총 12회기로 구성하였다. 타악기 합주를 활용한 음악치료 선행연구(유지아, 2016; 이기윤, 2017; 이다혜, 2019)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은 크게 무울타악기 합주와 유울타악기 합주, 무울타악기와 유울타악기의 혼합 합주 등으로 구분하였다. 무울타악기 합주는 악기탐색, 리듬 모방연주, 리듬 주고받기, 리듬 합주 등의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유울타악기 합주는 선율 연주와 화음 연주로 활동을 구성하였다.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매 회기별 활동 구성은 인사노래를 통해 음악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그룹원 간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눈 마주침 인사와 함께 활동에 대한 참여 및 집중을 높였다. 중심활동에서는

각 회기별 목적에 맞는 타악기 합주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음악활동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느낌을 나누며 그룹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후 마치는 노래를 부르며 마무리하였다.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악기는 무울타악기와 유울타악기이며, 치료 환경에 따라서 악기를 유동적으로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여러 악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음색과 크기, 음고, 연주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악기를 선택하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사용악기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사용악기

구분		사용악기		
무울타악기	북종류	- 튜바노 드럼, 줌베, 콩가, 게더링 드럼		
		- 한국 전통북, 난타북		
	리듬악기	가죽류	탬버린, 핸드드럼	
		금속류	카바사, 아고고벨, 트라이앵글, 카우벨	
		종류	나무류	귀로, 코끼리코, 우드블럭, 캐스터네츠, 클라베스
	웨이커	마라카스, 에그웨이커		
유울타악기		핸드벨, 톤차임		

프로그램의 단계별 활동은 점진적으로 리듬, 선율, 화음 연주 등의 음악적 과제 난이도를 높여 구조화하여 설계하였으며, 무울타악기에서 유울타악기의 합주 경험으로 음악적인 경험의 확장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호교류 및 정서적 반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래관계의 하위영역인 사회적지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과 정서의 하위영역인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를

토대로 회기별 목적을 구성하였다.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활동 구성은 <표 III-6>과 같다.

<표 III-6>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단계별 활동 구성

단계	회기	목적	음악치료 활동
초기	1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형성	‘We will rock you’ 타악기 합주
	2		‘여행을 떠나요’ 리듬 합주
중기	3	자기표현 및 감정표현 향상	‘맘마미아’ 리듬 합주
	4	상호교류 및 행동조절 향상	‘고속도로 로맨스’ 리듬 합주
	5	부정적 감정 해소	‘바운스’ 타악기 합주
	6		‘도레미송’ 핸드벨 합주
	7	협동행동 및 공감기술 향상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톤차임 합주
	8	긍정적 정서표현 향상	‘젓가락 행진곡’ 톤차임 합주
	9		‘You raise me up’ 톤차임 합주
	10		‘가을이 오면’ 타악기 혼합 합주
후기	11	공유행동 및 소통기술 향상	‘제주도 푸른밤’ 타악기 혼합 합주
	12	긍정적 정서표현 향상	‘타악기 합주’ 발표회

초기단계(1-2회기)에서는 치료사와 그룹원간의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악기탐색과 연주방법을 익히는 과정을 통해서 참여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유도하였다.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기본 리듬 합주와 리듬을 주고받는 활동을 통해서 긴장감 완화 및 음악적 환경의 적응을 도움을 주었다. 그룹원간의 소속감을 경험하고 친밀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기단계(3-9회기)는 크게 상호교류와 협동행동 향상에 초점을 두어 목적을 설정하였다. 3회기는 자기표현 및 감정표현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4회기와 5회기에서는 상호교류 및 행동조절 향상과 부정적 감정 해소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룹 전체에서 소그룹으로, 소그룹에서 개별로 점차 범위를 구체화하여 상호교류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리듬을 만들고 모방하며 주고받는 활동을 통해서 그룹원과의 긍정적인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리듬 합주 활동을 구성하였다. 타악기 합주를 통해 음악적 구조에 따라 다양한 악기와 리듬을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그룹원과의 언어적·음악적 교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6회기에서 9회기까지는 협동행동 및 공감기술 향상과 긍정적 정서표현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전 회기의 리듬 중심 무율타악기 합주에서 선율 및 화음연주 중심의 유율타악기 합주로 확장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룹원과의 합주 활동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서로 간의 협동 행동을 향상되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룹원과의 협동하는 과정과 수용과 지지를 받게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후기단계(10-12회기)에서는 공유행동 및 소통기술 향상과 긍정적 정서표현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율타악기와 유율타악기가 혼합된 형태인 타악기 합주 활동을 구성하였으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룹 전체가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호교류 및 협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로 간의 배려와 공감을 통해 언어적·비언어적 소통기술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12회기에는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타악기 합주 발표회를 통하여 성공적인 경험과 만족감, 성취감 등을 경험하게 하여 긍정적 정서표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은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가요, 뮤지컬 음악, 영화 음악, 피아노 연주곡 등으로 아동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음악을 사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과 선호하는 음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약 65%가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음악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금미, 2005). 특히 아동들은 빠른 템포의 음악과 장조의 음악을 선호한다고 하였다(이선민, 2004; 이금미,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 매체를 통해 익숙하고 친근하게 접하게 되는 대중음악 중에서 장조의 밝은 느낌과 경쾌한 리듬, 빠른 템포로 구성된 음악과 대상자들의 선호곡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아동에게 익숙한 대중음악을 활용한 음악중재는 그룹원들과 함께 음악을 경험하고 음악적 교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밝은 곡의 분위기와 가사가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일으켜 정서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음악적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활용 내용 및 치료적 논거는 <표 III-7>과 같다.

<표 III-7>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및 치료적 논거

회기	활동 내용	치료적 논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악기 탐색과 합주 경험 <p><We Will Rock You> 'Queen' G Major, 4/4박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악기를 탐색하는 과정은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키고, 음악적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도와 그룹 안에서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다. 악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합주하는 활동은 음악 안에서 타인과 소통하여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음악에서 일정하게 연주되는 4박자 리듬은 안정된 구조와 질서를 제공하며, 그룹 내 동질감을 형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리듬모방 및 리듬교류 • 음악적 상호작용 경험 <p><여행을 떠나요> '이승기' E Major, 4/4박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전체가 동일한 리듬을 합주하는 활동은 반복적인 시행을 통해서 그룹 내 동질감 뿐만 아니라 소속감을 제공하여 결속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 리듬을 주고받는 활동은 합주에 대한 긴장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음악적 구조 안에서 상호교류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언어적·음악적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친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노래와 악기를 연주하는 구간이 4박자씩 일정하게 교차로 반복되는 음악적 구조는 안정감과 함께 부담 없이 연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룹별로 리듬을 주고받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도록 돕는다. 빠른 템포와 신나고 경쾌한 리듬은 그룹의 역동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내 리듬표현 및 리듬교류 • 타악기를 사용한 감정표현 <p><Mamma Mia> 'Bjorn Ulvaeus' D Major, 4/4박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내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은 안전한 음악적 환경 및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룹 안에서 음악적 지지와 수용되는 경험은 자기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우며, 그룹 전체의 반응이 자기표현에 대한 지지와 강화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 음악에서 제시되는 분할리듬과 함께 스타카토와 악센트가 번갈아가면서 반복되는 구간은 그룹 전체가 동일한 리듬을 합주하도록 리듬 큐(cue)를 제공하여 능동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다. 리듬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표현이 타인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경험을 하도록 돕는다.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원과의 리듬모방 및 리듬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리듬을 모방하여 반영하는 활동은 타인으로부터 조건 없는 관심과 지지, 수용되는 경험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리듬을 주고받는 상호교류적인 환경은 그룹원간의 비언어적 교류를 유도

<p>• 타악기를 사용한 부정적 감정 표현</p> <p><고속도로 로맨스></p> <p>‘윤종신’</p> <p>C Major, 4/4박자</p>	<p>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여 내재된 에너지를 표출하도록 도와서 부정적 감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른 템포의 경쾌한 리듬과 악센트, 엇박자 등의 음악적 요소들은 자신만의 다양한 리듬을 만들도록 사용되어 타인과의 상호교류의 기회와 폭을 넓히도록 돕는다. 경쾌한 분위기의 가사와 코러스가 반복되는 음악적 구조는 개별 리듬 제시와 리듬 모방을 가능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상호교류를 도와 그룹 내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p>5</p> <p>• 무울타악기 합주</p> <p>• 타악기를 사용한 부정적 감정 표현</p> <p><Bounce></p> <p>‘조용필’</p> <p>C Major, 4/4박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원들이 악기와 리듬 구성 및 역할에 대해 서로 의논하고 자율적으로 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타인과의 교류를 유도할 수 있다. 음악적 구간에 따라 독주와 합주 형태의 다양한 연주를 구성하는 활동은 개인이 악기의 소리와 강도를 조절하며 연주하도록 하여, 자기통제 및 자기조절을 통한 개인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고고리듬 패턴의 전경적 배경리듬은 악센트와 함께 음악적 단서로 제공되어, 그룹 전체가 합주 구간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그룹 내 음악적 상호작용과 협동을 유도할 수 있다.
<p>6</p> <p>• 핸드벨 악기탐색 및 선율연주</p> <p><도레미 송></p> <p>‘Richard Rodgers’</p> <p>C Major, 4/4박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음고를 가진 악기의 활용은 연주에 집중하도록 도우며, 타인 인식과 이해 및 수용을 향상시키고 일체감을 경험하게 한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합주하는 과정은 타인과 함께하는 협동과 조화의 인식, 서로 간의 긍정적인 음악적 지지 등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 다장조의 기본 8음계가 가사에 포함되고, 순차적으로 음정이 제시되는 선율의 구조를 가진다. 순차적으로 상

	<p>향 진행되는 선율 구조의 음악은 정서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선율이 8도 이내의 음역대에서 3도 도약과 5도 도약, 순차진행이 반복되는 구조는 예측성을 제공하고 활동의 수행력을 높일 수 있다.</p>
7	<p>• 톤차임 악기탐색 및 선율 연주</p> <p><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 G Major, 3/4박자</p> <p>• 톤차임</p> <p>원곡이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톤차임을 사용하여 선율 연주하기에 여유롭고 원만한 템포이다. 선율 진행은 순차진행과 5도 이내의 도약진행이 교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음악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톤차임의 차별한 음색과 음악의 선율이 어우러져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p> <p>• 2명의 그룹원이 동시에 연주하는 활동은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협동하는 마음을 고취시켜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2성부 선율 연주는 타인을 배려하며 함께 연주하기, 기다리기, 악기 소리와 강도 조절하기 등으로 그룹원의 연주 소리에 집중해야 하므로 타인을 공감하는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다(김혜정, 양은아, 2013).</p>
8	<p>• 톤차임 2성부 선율 연주</p> <p><젓가락 행진곡> 'Aleksandr Borodin' C Major, 6/8박자</p> <p>• 2성부 선율 연주의 음악적 구조가 왈츠 리듬과 동일하게 쉽없이 연주되는 형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연주를 해야 하므로 타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배려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2성부 선율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는 순차진행이므로 그룹원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p>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톤차임 <p>3화음 연주</p> <p><You raise me up> 'Secret Garden' C Major, 4/4박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이 함께 협동과 조화를 이루어 화음을 연주하는 활동은 자신의 역할에 따른 책임감과 그룹 내 협동심 및 유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화성적 변화를 연주하는 활동은 성공적인 협동을 통해 상호 간의 음악적 지지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다. • 곡의 편안한 느낌과 반복되는 선율 구조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톤차임의 풍부한 음색이 2박자가 진행될 때까지 여운을 남겨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3화음 연주는 협동과 조화, 이완을 도모하기 때문에 더 많은 그룹원과 함께 음악적 환경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협동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 (홍민주, 순진이, 20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주부 <p>무율타악기와 선율부 유율타악기의 혼합 합주</p> <p><가을이 오면> '서영은' C Major, 4/4박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소그룹으로 반주부와 선율부 역할을 구분하여 합주하는 활동은 서로 다른 패턴의 선율과 리듬을 연주한다. 합주 안에서 각자 다른 역할로 상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소그룹 간의 언어적·음악적 교류를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여 서로 조율하는 과정은 타인과의 생각 및 감정, 역할에 대한 공유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 • 켄베 리듬과 미디엄 템포의 잔잔한 분위기는 화음으로 풍부하게 연주되는 톤차임의 음색과 함께 어우러져 서정적인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곡의 리듬과 동일하게 연주하는 무율타악기와 풍부한 음색의 톤차임 혼합 합주는 음악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합주 과정에서 그룹원들이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의 긍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주부 <p>무율타악기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율부와 반주부의 서로 다른 역할의 합주 활동은 하나의 음악을 만드는 과정을 제공하여 전체의 협동과 조화를 통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교류 증진을 도모할

<p>선율부 유율타악기의 혼합 합주</p>	<p>수 있다. 합주 과정에서 타인과의 언어적·비언어적 소통은 사회적 상황에서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를 비경쟁적이고 안전한 음악적 환경에서 다룰 수 있도록 유도하며, 타인과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여 또래관계의 확장을 도울 수 있다.</p>
<p><제주도 푸른 밤> '성시경' C Major, 4/4박자</p>	<p>• 곡의 잔잔한 분위기와 톤차임의 청아한 음색은 조화롭게 어우러져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음악적 환경을 제공한다. 그룹원과 함께 음악을 완성하는 과정은 상호교류와 협동의 기회를 강화하고, 타인과 함께 연주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 행복감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한다.</p>
<p>• 타악기 합주 발표회</p>	<p>• 그룹 전체가 협동과 조화를 통해 완성한 음악을 발표하는 활동은 성공적인 연주 경험과 더 많은 사람에게 지지와 수용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그룹 전체가 결과물을 발표하는 과정은 상호교류와 협동 및 공유행동을 강화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기술 및 소통기술의 확장을 도와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p>
<p>12</p>	<p>• 발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다함께 감상하는 활동은 그동안 그룹원들과 활동했던 과정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떠올리게 하여,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통한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가능하게 한다.</p>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또래관계 척도와 한국 정서경험 척도 점수 결과에 대한 양적 분석과 또래관계 및 정서변화 관련 행동 변화의 추이에 대한 질적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연령 등 일반적 사항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대상자들의 또래관계 척도와 한국 정서경험 척도에 대한 사전·사후 점수의 결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은 모집단의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서 소집단으로 구성되는 경우로 정규분포가 아닌 비모수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이다. 즉, 동일한 집단의 평균점수의 값을 사전·사후로 비교하여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셋째, 대상자들의 또래관계 척도와 한국 정서경험 척도의 하위영역별 사전·사후 점수의 결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n=7) 모든 통계적 분석은 비모수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이다.

넷째,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과정에서 나타난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녹화한 영상을 바탕으로 또래관계 행동 및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관찰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찰 기록된 행동 데이터는 회기별로 표와 그래프로 작성하여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또래관계 행동 및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행동을 질적으로 기술하고, 언어적 표현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전체의 인원은 총 7명으로, 성별은 남자 2명(28.6%), 여자 5명(71.4%)이며, 연령은 11세 4명(57.1%), 12세 1명(14.3%), 13세 2명(28.6%)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의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의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연구 대상자의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백분율(%)
성별	남자	2	28.6
	여자	5	71.4
연령	11세	4	57.1
	12세	1	14.3
	13세	2	28.6
부모 구성	한부모	2	28.6
	부모	5	71.4
주양육자	아버지	1	14.3
	어머니	6	85.7
아버지 연령	35세-40세	5	71.4
	한부모	2	28.6
어머니 연령	30세-34세	5	71.4
	35세-40세	2	28.6

어머니 출신국가	베트남	6	85.7
	파키스탄	1	14.3
아버지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4	57.1
	전문대 졸업	1	14.3
	한부모	2	28.6
어머니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4	57.1
	고등학교 졸업	2	28.6
	전문대 졸업	1	14.3
아버지 직업	판매 및 서비스직	1	14.3
	장치 및 기계직	4	57.1
	한부모	2	28.6
어머니 직업	판매 및 서비스직	2	28.6
	장치 및 기계직	4	57.1
	전업주부	1	14.3

2.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1) 또래관계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의 평균점수와 사후검사의 평균점수에 대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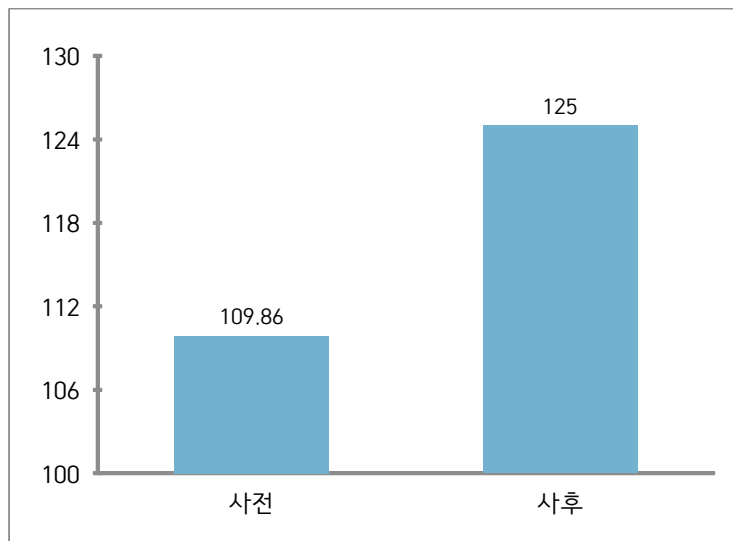
검정결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이후 또래관계의 전체점수에 대한 사전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5$), 사전검사 평균

점수(M=109.86)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점수(M=125.00)가 증가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또래관계가 음악치료 프로그램 이후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2>와 <그림 IV-1>과 같다.

<표 IV-2> 또래관계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또래관계	109.86(12.33)	125.00(13.87)	-2.366	.018*

* $p < .05$



<그림 IV-1> 또래관계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또래관계의 각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의 평균점수와 사후검사의 평균점수에 대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이후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지지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하위영역별로 자세한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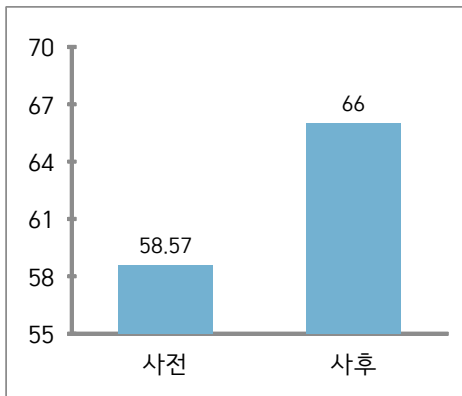
첫째, 관계에 대한 만족이나 타인을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사회적지지’의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전검사 평균점수($M=58.57$)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점수($M=66.00$)가 증가하였다.

둘째, 함부로 지시하거나 무시하는 행동과 같은 지배적 행동양상 정도를 측정하는 ‘처벌주도권’의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전검사 평균점수($M=15.43$)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점수($M=17.28$)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3>, <그림 IV-2>, <그림 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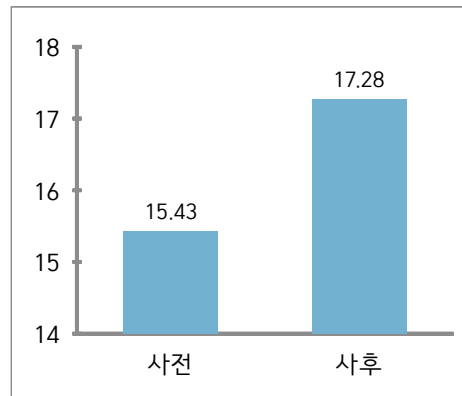
<표 IV-3> 또래관계 하위영역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사회적지지	58.57(9.43)	66.00(7.89)	-2.371	.018*
처벌주도권	15.43(1.51)	17.28(1.49)	-2.214	.027*
친밀	15.14(2.60)	18.28(3.03)	-2.375	.018*
우의	11.28(1.97)	12.71(1.60)	-2.428	.015*
대립	9.00(5.78)	10.71(1.70)	-2.220	.026*

* $p < .05$



<그림 IV-2> 사회적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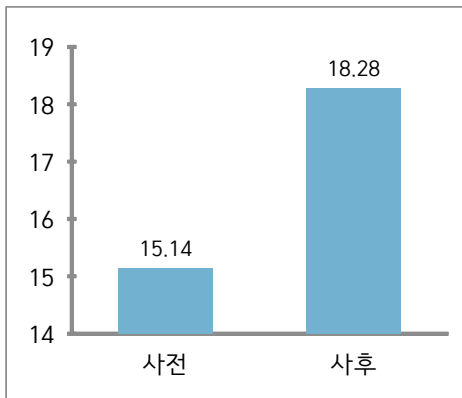


<그림 IV-3> 차별주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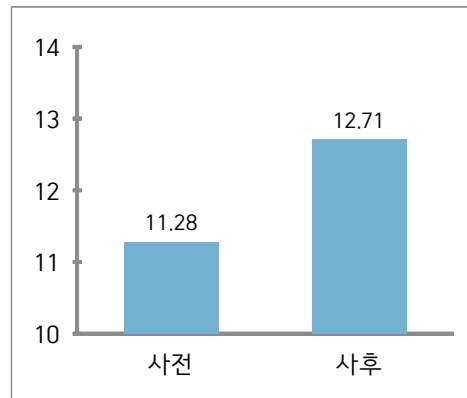
셋째, 개인적 생각이나 느낌을 타인에게 나타내는 정도를 측정하는 ‘친밀’의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전검사 평균점수($M=15.14$)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점수($M=18.28$)가 증가하였다.

넷째, 타인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우의’의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전검사 평균점수($M=11.28$)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점수($M=12.71$)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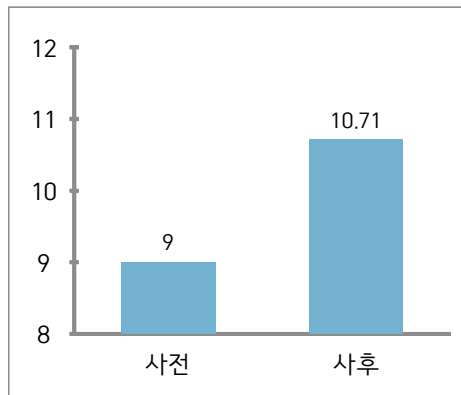
다섯째, 언어적 논쟁이나 의견 및 생각의 마찰 정도를 측정하는 ‘대립’의 경우에는 사전과 사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전검사 평균점수($M=9.00$)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점수($M=10.71$)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IV-4>, <그림 IV-5>, <그림 IV-6>과 같다.



<그림 IV-4> 친밀



<그림 IV-5> 우의



<그림 IV-6> 대립

2) 한국 정서경험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다문화 아동의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적정서와 부적정서 각각에 대한 사전검사의 평균점수와 사후검사의 평균점수에 대해 Wilcoxon Matched Pair 검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검정결과, 음악치료 프로그램 이후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 대한 자세한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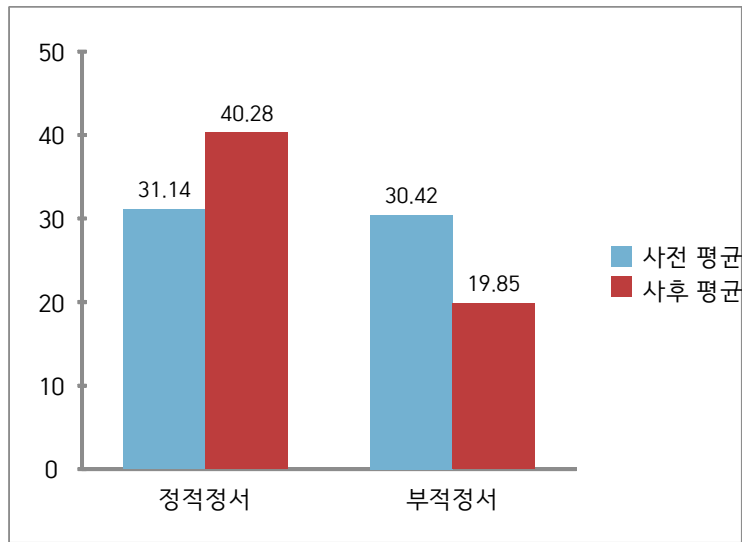
첫째, ‘즐거움, 행복한, 만족스러운’ 등과 같은 구인으로 구성된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정적정서’의 경우에는 사전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전검사 평균점수($M=31.14$)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점수($M=40.28$)가 증가하였다.

둘째, ‘두려운, 분노한, 짜증나는’ 등과 같은 구인으로 구성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부적정서’의 경우에는 사전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전검사 평균점수($M=30.42$)에 비해 사후검사 평균점수($M=19.85$)가 감소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의 정서변화가 음악치료 프로그램 이후 정적정서의 증가와 부적정서의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4>, <그림 IV-7>과 같다.

<표 IV-4> 정서변화에 대한 Wilcoxon Matched Pair 검정

하위영역	사전검사	사후검사	Z	p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정적정서	31.14(5.78)	40.28(6.82)	-2.371	.018*
부적정서	30.42(9.29)	19.85(7.92)	-2.384	.017*

* $p < .05$



<그림 IV-7>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의 사전·사후 평균점수

3) 음악치료 과정에 나타난 또래관계 행동 및 정서표현 행동관찰 분석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행동과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은 녹화한 영상 자료를 토대로 행동관찰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동관찰 분석을 통해 대상자들의 행동 특성이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질적으로 기술하여 전반적인 중재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적행동으로 설정된 또래관계 및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유형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관계 행동’은 긍정적 또래관계 향상에 초점을 두어 타인과의 상호교류나 협동과 같은 사회적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음악치료 상황에서 또래관계 행동 예시는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짓는 행동’, ‘타인의 리듬을 그대로 수용하여 모방하는 행동’, ‘그룹원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화음 소리가 나도록 협동하는 행동’ 등이다.

둘째,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은 부정적 정서표현 행동의 감소보다는 긍정

적 정서표현 행동의 향상에 초점을 두어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정서표현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음악치료 상황에서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 예시는 ‘3화음 연주에서 느낀 경험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타악기 합주 활동 후에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등이다.

행동관찰에서 또래관계 행동과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에 해당하는 표적 행동 목록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표적 행동 목록

항목	표적 행동
또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원과 눈 마주치기 • 그룹원에게 미소 짓기 • 그룹원에게 손 흔들며 인사하기 • 타인의 리듬을 모방하기 • 타인의 연주를 경청하기 • 타인의 연주에 박자 맞추기 •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기 • 타인과 긍정적으로 소통하기 • 타인과 연주 신호를 주고받으며 협동하기 • 악기 소리와 강도를 조절하기 •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차례 지키기 • 그룹에서의 자기표현하기
긍정적 정서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를 사용한 긍정적인 감정표현하기 • 긍정적인 단어를 포함하여 표현하기 • 음악적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기 • 협동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기 • 합주 경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1) 또래관계 행동변화

음악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행동은 매 회기 녹화한 영상 자료 및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또래관계 행동’은 그룹 안에서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협동을 하는 행동양상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였다.

대상자들의 또래관계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초반에는 자신이 선택한 악기에만 집중하는 행동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행동, 악기의 소리를 조절하지 않고 세게 치는 행동 등의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타악기를 사용하여 리듬을 합주하고 화음을 연주하는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들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그룹원이 제시한 리듬을 즉각적으로 모방하는 행동과 타인의 연주에 집중하는 행동, 화음 연주를 위해 자신의 악기 소리를 조절하는 행동 등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각 대상자별로 또래관계 행동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A는 프로그램 초기에 연령이 같은 C, D 옆에 앉아서 해당 그룹원들과의 제한된 교류를 하였고, 다른 그룹원에게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합주 활동에서 연령이 다른 그룹원들과도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는 행동과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행동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점차 보이기 시작하였다. A는 합주 활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C, D에게 “우리 그러면 쉽게 한 박자씩 하자. (튜바노 드럼을 치면서) 쿵 쿵 어때? 이거 쉽지?”라고 말하며, 합주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A는 E와 F에게 먼저 다가가 웃으며 말을 거는 행

등을 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연주를 놓치는 C와 D에게 “너야”라고 이름을 부르며 순서를 놓치지 않게 연주하도록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A는 점차 타인에 대한 친밀감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룹원과의 원활한 소통과 긍정적으로 상호교류하는 행동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대상자 B는 초기에 다른 그룹원과의 눈 마주침이나 언어적 교류가 없이 자신의 연주에만 집중하며 악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4회기부터 B는 타인의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F와 G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거나 상대방 어깨에 기대고, 밀착하여 앉아서 장난을 치는 등의 관심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을 통해 그룹원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점차 그룹원과 함께 악기의 소리와 강도, 연주 속도 등을 조절하며 음악 안에서 타인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B는 D가 리듬을 만들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행동을 보이자,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난타북을 연주하며) 쿵쿵 딱, 이거 어때?”라고 이야기를 하며 리듬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B는 그룹 안에서 A, F, G에게 수용과 지지를 받은 경험을 통해 타인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협동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주에 집중하는 모습의 변화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A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시작하여 점차 F와 G까지 그룹원과의 관계형성을 확장시키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대상자 C는 초기에 다른 그룹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룹 안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D를 제외한 그룹원들과의 언어적·비언어적 소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후 무울타악기를 사용하여 리듬합주 활동을 통해서 C는 타인의 악기 연주 속도와 소리의 크기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C는 5회기 이후부터 D 외에 같은 연령의 그룹원인 A와 B와도 눈을 마주치며 반갑게 인

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타인에게 악기를 양보하고 그룹원과 이야기를 주고 받거나 악기를 가지고 가벼운 장난을 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C는 합주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룹원들에게 큰 소리로 “우리 협동해요.”라고 표현을 하며,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으로 연주 신호를 주고 받으며 합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합주 활동을 통해서 A와 B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A와 F에게 악기를 양보하는 모습, E의 리듬 연주에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 등의 타인과의 상호교류와 협동 행동이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넷째, 대상자 D는 프로그램 초기에 한 명의 그룹원, C와 소통하는 방식에서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연령의 그룹원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D는 초기에 그룹 안에서 심한 장난을 치거나 악기를 크게 치며 합주를 방해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이며 활동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타인에게 집중하는 행동의 증가와 함께 그룹원과의 상호교류와 협동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다. 특히 D는 톤차임 악기를 사용한 화음 연주에서 전체 그룹원과 지속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E와 G 그룹원의 움직임과 자신의 움직임을 동일하게 맞추는 시도를 하였으며, 연주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타인의 연주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까지 C에게만 집중되었던 상호교류가 그룹원 A, B, E, G까지 확장되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걸거나 미소를 지으며 관심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다.

다섯째, 대상자 E는 초기에 그룹원에게 인상을 찌푸리거나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보였다. 점차 그룹 안에서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형성을 하며,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걸거나 환하게 웃으며 그룹원을 챙기는 모습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E는 C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콩가와 튜바노 드럼 악기의 속도

를 동일하게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C의 리듬을 치는 박자가 빨라지면 환하게 웃으며 “C야. 날 보고 따라해봐.”라고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E는 B와 C에게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도움을 주는 행동과 A를 챙기는 행동으로 그룹원과 협동하며 공감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E는 합주 활동에서 그룹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조율을 하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타인과 상호교류와 소통을 하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여섯째, 대상자 F는 프로그램 초반에 그룹원과의 단절된 관계 양상을 보이며, 언어적 소통과 상호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악기를 합주하는 활동을 통해서 점차 타인에 대한 친밀감을 먼저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악기를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타인의 리듬을 모방하는 행동을 보이며, 그룹원들과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는 행동이 증가하였다. F는 6회기 이후에 그룹 안에서 연주 순서에 따라 그룹원들에 대한 시선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타인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F는 자발적으로 B의 튜바노 드럼을 옮겨주며 도와주는 모습과 같은 악기를 선택하였을 때 먼저 손을 들어서 양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F는 음악활동 안에서 그룹원의 리듬을 정확하게 모방하여 반영하는 행동과 자신이 만든 리듬을 그룹원에게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으로 타인과 상호교류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그룹원들과 눈 마주침과 미소 짓는 등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행동의 증가와 함께 합주 활동을 위해 양보하고 협동하는 행동의 증가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곱째, 대상자 G는 초기에 항상 뒤에 서서 지켜보거나 그룹원과의 관계 형성에서 소극적인 모습은 보였다. 점차 그룹 안에서 타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며 상호작용하는 모습과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G는 리듬을 만들어서 함께

주고받는 리듬 합주 활동에서 B와 C와 함께 앉아서 노래 가사를 불러주며 “벗어나봐요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거야”라고 말하며 리듬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G는 B와 C, E가 원활하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리듬을 함께 맞추어 본 그룹원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함께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그룹원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며,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래관계 행동에 대한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상자들의 또래관계 행동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과 타인과의 상호교류 및 협동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룹원들은 리듬을 주고받고 모방하여 반영하는 리듬합주 활동과 선율 및 화음 연주를 하는 활동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차분히 기다려주고 함께 하고자 하는 모습, 서로에게 양보와 배려하는 모습 등으로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교류 및 협동하는 행동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타인의 연주에 집중하고, 연주 순서를 타협하고 양보하여 함께 맞추어 가는 과정이 대상자들의 바람직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변화

음악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다문화 아동의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은 매 회기 녹화한 영상 자료 및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은 다양한 음악 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양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 정서표현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자신의 감정 및 정서표현 행동을 관찰

하였다.

대상자들의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초반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이 짧은 문장의 단위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점차 다양한 합주 활동을 통해서 그룹원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행동들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합주 경험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행동과 직접적으로 경험한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 자세하게 표현하는 행동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각 대상자별로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A는 초기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만족에 대한 표현을 하는 모습에서 점차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에 대한 표현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A는 톤차임 합주 활동에서 “처음에는 잘 안 맞았지만 할수록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었어요.”라고 말하며 그룹원과 함께하는 합주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A는 핸드벨과 톤차임을 활용한 율타악기 합주 활동에서 “핸드벨을 같이 치는게 너무 재밌었어요.”, “톤차임 소리가 신기하고 진동이 엄청 울려요. 처음 보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니깐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점차 합주 과정에서 자신이 느낀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을 하며, 협동을 통해 더 많은 그룹원과 함께한 경험에 대한 소중함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의 변화를 보였다.

둘째, 대상자 B는 초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거나 말을 하지 않을 채 미소를 짓는 등 비언어적 표현 위주의 소극적이고 제한된 정서표현을 하였다. 점차 그룹원과 합주 활동을 통해서

경험한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B는 타악기 리듬 합주 활동을 수행하며, “다같이 똑같은 리듬을 맞추니까 재미있고 신났어요.”, “협동을 하니까 맞추기 힘들지만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재밌었어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B는 그룹원과 같이 연주하는 것과 협동하여 화음을 맞추는 활동에서 “같이 협동을 해서 연주를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고, 즐거웠어요.”라고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기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음악치료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B는 큰 음량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비교적 긴 문장으로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표현하는 점진적 변화를 나타냈다.

셋째, 대상자 C는 프로그램 초기에 그룹원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무울타악기를 사용한 합주 활동을 하면서 밝게 웃는 등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C는 그룹원과의 협동을 통한 합주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악기를 같이 연주해서 재밌었어요.”, “협동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타인과의 협동에 만족감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C는 북 종류의 타악기를 연주한 후 밝게 웃으며 “북이 제일 재밌어요. 재밌어서 행복해요.”라고 활동에 대한 내용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세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점차 그룹원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 C는 타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는 모습의 변화를 나타냈다.

넷째, 대상자 D는 초기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치료사의 질문에 매우 간단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타악기로 그룹원의 리듬을 모방하고 반영하는 활동에서 “리듬을 맞춰서 다함께 합주하니깐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히 D는 유희타악기 합주 활동에서 타인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집중하는 모습과 함께 “같이 쳐다보면서 연주하니깐 완전 재밌었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이야기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언어적인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미소와 큰 목소리, 몸동작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함께 표현을 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다.

다섯째, 대상자 E는 초기에 일관된 얼굴표정과 무뚝뚝한 목소리 톤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룹원과의 합주 활동을 한 후에 점차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행복과 즐거움에 대한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E는 “북치는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같이 북 연주를 할 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만든 리듬을 같이 해줘서 기뻐요”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다같이 연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E는 “리더가 되어서 알려주는 것이 보람이 있었고, 서로 합주하는 경험이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말하며 그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긍정적인 정서경험에 대한 표현을 자세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E는 악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룹원과 합주하는 활동에서 경험한 자신의 느낌이나 정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긴 문장으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며 변화를 나타냈다.

여섯째, 대상자 F는 초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질문에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행동을 보였다. F는 동일한 작은 리듬악기를 선

택하는 모습에서 자발적으로 큰 북 악기를 선택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다. 정서표현에서도 “몰라요.”에서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괜찮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F는 점차 악기 연주를 몸동작을 크게 움직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룹원들과 소통을 하며 웃는 표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F는 톤차임 화음 연주 활동을 한 후에 큰 목소리로 “같이 연주해서 재밌었어요.”, “느낌이 좋았어요.”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다양한 합주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변화를 보였다.

일곱째, 대상자 G는 프로그램 초기에 구부정한 자세와 작고 위축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등 감정적으로 위축되고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점차 그룹원과의 소통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며 합주 경험에 대한 즐거움을 큰 목소리로 표현하며 음악 경험에 대한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의 변화를 보였다. G는 타악기 합주 활동에서 몸동작을 크게 하여 북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이며, “북 연주를 하고 나서 스트레스가 너무 풀린 것 같아요.”, “화가 쌓인 게 좀 풀린 것 같아요.”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G는 “다같이 협동해서 합주하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행복했어요.”라고 표현을 하면서, 역할을 함께 수행한 그룹원들을 보며 “애들이 맞춰줘서 뿌듯했어요.”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G는 타악기 합주가 끝나고 난 후에 악기를 크게 흔들어서 마무리를 하거나 웃으며 박수를 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합주 활동에 대한 뿌듯함과 만족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의 변화를 가져왔다.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에 대한 변화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초기에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양상에서, 점차 그룹원과 협동하여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가는 과정들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양상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유유타악기

를 활용하여 선율과 화음을 연주하는 활동에서 성취감과 만족감, 행복감, 즐거움 등의 자신이 경험한 감정이나 정서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의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상자들은 언어적인 표현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 몸동작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과 협동하여 하나의 조화로운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행동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 론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에게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를 실시하여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S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 아동 7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회기 당 50분씩 주 2회, 총 12회기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또래관계 척도와 한국 정서경험 척도를 실험 전후에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또래관계 행동 및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매 회기 녹화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행동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는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에 참여한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는 사전·사후검사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후검사의 평균점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또래관계의 하위영역 중 사회적지지와 처벌주도권, 친밀, 우의, 대립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후검사 평균점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타악기 합주 과정에서 또래관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상호교류하고 협동하는 자세와 공감, 배려 등의 경험을 통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타악기 합주를 활용한 음악치료가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김지현(2017), 김현지(2018), 문지연(2006), 이주선(2017)

의 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는 다문화 아동의 정서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에 참여한 다문화 아동의 정적 정서는 사전·사후검사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후검사의 평균점수가 증가하였다. 부적정서는 사전·사후검사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p < .05$), 사후검사 평균점수가 감소하였다. 정적정서의 경우에는 사후검사 평균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 정서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부적정서의 경우에는 사후검사 평균점수가 감소함에 따라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룹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만족감과 성취감, 자신감, 기쁨과 행복, 보람 등의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도록 도와 정서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악기 중심의 음악치료는 자신의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고, 타인과의 성공적인 합주 경험을 통해 긍정적 정서의 증가와 부정적 정서의 감소라는 정서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악기 중심의 음악치료가 아동의 긍정적 정서 증가 및 부정적 정서 감소라는 정서변화의 효과를 입증한 강정숙(2005), 이종미(2006), 정연수(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는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 행동과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관찰 분석 결과, 또래관계 행동과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에서 대상자별로 초기의 관찰되었던 행동양상이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또래관계 행동의 경우, 프로그램 초기에는 대부분의 아동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행동 양상을 보였으나 음악치료 회기의 진행과 함께 점차 타인과 공감하고 배려와 양보를 하며 협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타악기 그룹 합주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그룹의 음악적 결과물을 산출하는 경험을 통해 그룹 내 역할 수행, 상호교류,

협동 행동, 유대감 및 친밀감 형성의 기회를 풍부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긍정적 정서표현 행동의 경우, 프로그램 초반에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자기표현의 어려움과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으나 점진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감정과 정서를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상세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특히 합주 활동에서의 감정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룹에서의 타악기 연주 경험이 감정탐색과 감정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 음악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유도한 본 연구의 치료중재 효과로 이해될 수 있다. 특별히 무율타악기와 유율타악기를 사용하여 리듬, 선율, 화음 순으로 체계적인 합주를 진행함으로써 대상자들이 바람직한 관계기술과 긍정적 감정표현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훈련하도록 한 행동전략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미치는 치료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는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료적 도구로써 기능하며, 다문화 아동의 사회·정서적 영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중재 방법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의 측면과 음악치료 임상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상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아동에게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중재가 사회·정서적 지원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측면에서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의 효과를 입증하여,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타악기 합주를 활용한 음악치료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음악치료 연구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

고 있는 다문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단일집단으로 구성된 다문화 아동 7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고 비교집단이 없어 이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효과성 검증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표집 크기를 확대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12회기로 단기적으로 진행되어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 아동의 또래관계와 정서변화에 대한 효과를 객관화 및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요구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 장기적인 음악활동 계획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추후 유지 가능성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적정서 및 부정적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정서변화를 살펴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정서변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 또는 부정적 정서에 해당하는 우울 및 불안, 스트레스 등에 초점을 두어 정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한국 민속타악기를 포함한 무율 및 유율타악기를 사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연구 대상자들의 문화적 배경과 선호에 부합하는 타악기를 적용하여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타악기 구성에서도 다문화적 요소를 가진 이국적 타악기를 다양하게 배치하는 것은 다문화 아동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갑원 (1993). 자극성·진정성 음악이 긍정적·부정적 정서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7(1), 1-14.
- 강경선 (2009). 표현예술치료로서 사물놀이의 활용방안 연구. **인문과학연구**, 23, 453-470.
- 강경선 (2012). 정신재활 회원을 위한 음악치료 임상실습에서의 동기부여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9(1), 37-53.
- 강은아 (2018).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정숙 (2005). 집단음악활동 프로그램이 결손가정 자녀들의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지현, 여태철, 김재철, 김지현, 임진영 (2013).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사회성 비교. **교육문화연구**, 19(2), 31-62.
- 공미라 (2012). 타악기 중심의 난타활동이 유아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9). 2019년 교육기본통계. www.moe.go.kr
- 교육부 (2019). 2019년 다문화교육지원계획. www.moe.go.kr
- 교육통계서비스 (2019). 다문화 유형별 학생수. www.kess.kedi.re.kr
- 김경미, 이은주 (2018).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8(2), 161-181.
- 김경민 (2015). 단기 그룹 타악기 리듬연주를 통한 조현병 성인의 대인관계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현 (2010). 국제결혼 다문화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 방안. **인권복지연구**, 7, 1-37.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 (2003). 한국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미향 (2005). 청소년의 감각추구 동기와 대중음악 선호와의 관련성 조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7(1), 35-54.
- 김상락 (2015). **밴드합주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하 (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40-59.
- 김수연 (2011).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분석과 정부지원정책 방안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순규 (2011).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시연 (20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이용 동기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은 (2016). **초등 고학년 위축아동의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그룹 타악기 연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은경 (2010). **다문화 가정 모-자녀의 긍정심리성향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개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선 (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적·감정적 자기 표현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2015). **교정음악치료가 재소자의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정서 변화에 미치는 효과: 타악기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제한 (1982). **교육심리학**. 서울: 학문사.
- 김제한, 공석영, 김충기 (1980).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세광공사.
- 김지연 (2013).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다문화 가정 2세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심리적 특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17).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채운 (2014).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 순화와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늘 (2014). **점토를 이용한 집단 미술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영 (2012). **음악 감상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서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아를 대상으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 (2013).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동의 관계 및 다문화적 특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지 (2018). **악기연주 중심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양은아 (2013). **기악합주활동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또래 관계 기술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75-96.

- 김혜정, 유진이 (2009). 다문화청소년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7(4), 17-32.
- 김화성, 유형근, 남순임 (2014).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 가정 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교원교육**, 30(3), 177-195.
- 김효원 (2019). **Laban의 Effort요소를 활용한 무용/동작심리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민, 조수철 (1994). 소아와 청소년의 행동장애와 우울, 불안증상과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 33(6), 1273-1283.
- 남부현, 김연이 (2011).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격차 연구. **다문화교육**, 2(3), 19-58.
- 다누리 (2019).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및 서비스**.
<https://www.liveinkorea.kr>
- 류세인, 조인숙 (2015).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9), 6180-6189.
- 문지연 (2006).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2014). **국내 다문화가족 관련 음악치료 연구 논문 동향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 (2019). **핸드벨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시설노인의 고독감 감소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철, 윤희원, 조영달 (2007).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연구. **교육연구와 실천**, 71, 1-60.
- 박선희 (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

- 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25-51.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인숙, 이현림 (2008). 집단미술치료가 고립아동의 우울성향, 또래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5(3), 411-430.
- 박점자 (2015). **다문화 가정의 가족기능, 모의 양육효능감, 자녀의 언어발달 및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애 (2013). **아동음악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6~9세 아동을 위한 동요지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춘자 (2012). **활동중심 품성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정체감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은영 (2008). **화음의 종류와 템포의 변화가 정서반응 평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제처 (2017). **다문화가족지원법**. www.law.go.kr
- 법제처 (201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www.law.go.kr
- 변미희, 정은미, 정희정, 이송이 (2011). 다문화가족 아동의 심리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부모교육연구**, 8(2), 5-29.
- 서승연 (2018). **음악요소가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 멜로디와 리듬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서현희 (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집단예술치료 효과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한나, 김영신 (2017). 음악극 창작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력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4), 311-334.
- 손미나 (2015). 현실요법을 적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솔이 (2017). 동요를 활용한 노래 만들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능력과 언어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실 (2000). 음악치료가 정신질환자의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기철 (2013).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한국어교육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8(1), 53-76.
- 송영혜, 윤지현 (2004). 학령 전 아동의 또래관계의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0(1), 337-356.
- 송주승, 정혜명 (2010). 청소년의 음악적 취향과 인식에 관한 현황 조사 연구: 18세-24세를 중심으로. **음악연구**, 45, 115-130.
- 신아정 (2015). 청소년의 심리치료를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 S-Curve 이론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 (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정하, 조옥귀 (2002). 아동이 지각한 중요한 타인의 기대, 아동의 공격성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인문논총**, 15, 55-74.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1), 79-110.
- 양은정 (2007). 치료적 유율 타악기 합주가 가출청소년의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http://www.mogef.go.kr>

- 오선화, 황은영, 전유미 (2016). 음악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변화 및 우울감소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2(3), 203-225.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59-85.
- 유설희 (2013).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승희 (2018).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문화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 (2000). **아동발달의 이해**(제 2판). 서울: 문음사.
- 유지아 (2016).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재한 몽골 중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영, 강경선 (2016). 노래심리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Pilot Study.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8(2), 119-138.
- 이경미, 정규진, 최애나 (2011).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3), 39-61.
- 이경훈 (2018). **집단표현예술심리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미 (2005).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의 가창곡 선호도 조사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윤 (2017).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불안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다혜 (2019). **타악기 합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만성 조현병 환자의 대인**

- 관계 및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덕조 (2003). 타악기 연주 프로그램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중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2006). 국내 일반 및 장애 아동 관련 음악치료 학위논문 유형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3(2), 15-28.
- 이민형 (2019). 타악기 중심 음악치료가 중도시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람 (2018).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호, 김대군, 박균열 (2015).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36, 239-258.
- 이선미 (2010).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신체감각 증폭 지각 및 신체적 귀인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민 (2004). 노래 부르기와 감상 시 아동이 선호하는 템포와 조성에 대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6(1), 66-84.
- 이소희, 이선희 (2013).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정신건강.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4(3), 124-131.
- 이슬지 (2011). 음악프로그램이 새터민의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애련 (2015). 한국의 다문화 가정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11-142.

- 이원령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관련변인에 대한 문헌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29(3), 409-431.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은희, 이경옥 (2013). 교우관계 향상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2), 605-612.
- 이종미 (2006). 치료적 음악활동이 피 학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선 (2017). 드럼서클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학령후기 아동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채드 에베수타니, 윤석영, 노은정 (2019). 아동 및 청소년용 한국 정서 경험 척도의 타당화 연구. **인문사회** 21, 10(1), 571-586.
- 이지은, 문소영 (2017). 타악기 연주활동이 재한 중국 유학생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9(1), 93-115.
- 이지인 (2019). 다문화가정 관련 국내 음악치료 연구 동향 (2008년~2018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림 (2016). 다문화가정청소년과 일반가정청소년의 건강행태 비교.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주 (2006). 치료사-내담자 관계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한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3(2), 29-44.
- 임은실, 김현수 (2019). 학령 후기 아동의 놀이성과 또래관계와의 관계: 또래관계 질과 또래갈등해결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4(1), 71-92.

- 임한나 (2009).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상호작용,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그리고 비행경험**.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빛나, 김수지 (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 장윤정, 신유림 (2010). 또래 괴롭힘 피해와 학교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자아 지각 및 또래 신념의 매개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8(10), 25-35.
- 장정주 (2015). 긍정적 정서 증진 훈련이 대학생의 정적 및 부적 정서, 정서 조절의 곤란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학습장애연구**, 31(3), 421-443.
- 전수현 (2018). **톤차임 합주가 지적장애 성인의 주의집중력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희 (201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관련변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아영 (2014). **타악기 연주 중심 음악치료가 알코올 관련 장애 환자의 스트레스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연수 (2013). **악기연주를 통한 음악치료가 초등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건강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정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행동에 대한 연구 : A중학교 정서행동특성검사(AMPQ-II)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희, 정규진, 최애나 (2015). **톤차임을 활용한 집단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 11(4), 213-233.
- 정태미 (2010). **음악치료 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정 (2009). 새터민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심리치료 적용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1), 1-31.
- 정현주 (2011). **인간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 조수경 (2017). **다문화 이혼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위한 미술치료 단일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원탁, 박순희, 서선희, 안효자, 송기범, 이형하, 한신애 (2014).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실천(2판)**. 경기: 양서원.
- 조은지 (2017).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향 (2009).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의 관계에서 긍정 및 부정정서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인주, 현안나 (2012). 결혼이주여성의 우울 영향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문화변용과 적응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77-206.
- 조정은 (2010). 악기연주 활동을 통한 시설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7), 77-99.
- 조현상 (2010). **한국 다문화주의의 특징과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금남 (2014). **다문화 학생의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유경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136-144.

- 천호성, 박계숙 (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6-444.
- 최병철 (2006). **음악치료학 (2판)**. 서울: 학지사.
- 최선진 (2017). **미술치료가 한부모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불안에 미치는 효과 연구: 단일사례**. 한일장신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애나 (2012). 노래 중심 음악 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4), 1-19.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최진영 (2015). **노래중심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추정엽, 최애나 (2007). 음악치료가 정신분열증환자의 정서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3(2), 149-167.
- 통계청 (2019).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http://www.index.go.kr>
- 통계청 (2019). **결혼이민자 현황(연도별·성별·지역별·국적별)**. <http://kostat.go.kr>
- 통계청 (2019). **국제결혼 현황**. <http://www.index.go.kr>
- 하은경 (2004). 두드림의 다양한 임상언어. **한국학논집**, 31, 133-140.
- 현경자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이용과 결혼의 안녕 및 희망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6(2), 127-157.
- 홍민주, 순진이 (2017). 톤차임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3(3), 133-155.
- 홍소정 (2015). **우쿨렐레 연주 중심 집단음악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창희 (2004). 한국 정서경험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771-787.
- 황선영, 고재욱 (2013). 다문화가족아동의 학교생활적응실태 연구. *한국케어 매니지먼트연구*, 8, 97-117.
- 황수현 (2015).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섭 (20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무용 참여를 통한 문화적응력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혜익, 최혜진, 정혜영, 권유선 (2014).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서울: 공동체.
- 황혜진 (2014). 전래동요 중심의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및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vin, J., & Warwick, A. (1978). *Music therapy for the autistic chil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Arnold, M. B.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Vol. I. Psychological aspec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Bittman, B. B., & L. S., Felten, D. L., Westengard, J., Simonton, O. C., Pappas, J., & Ninehouser, M. (2001). Composite effects of group drumming music therapy on modulation of neuroendocrine-immune parameters in normal subjects. *Alternative Therapies in Health and Medicine*, 7(1), 38-47.
- Boxill, E. H. (1985). *Music Therapy Developmentally Disabled*. Rockville, MD: Aspen Systems.
- Bruscia, K. E. (1998). *The Dynamics of Music Psychotherapy*. NH: Barcelona Publishers.

- Bruscia, K. E. (2000). The nature of meaning in music therapy.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9(2), 84-96.
- Bruscia, K. E. (2003). **음악치료** (최병철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1998).
- Burns, D. S. (2001). The effect of bonny method of guided imagery and music on the mood and life quality of cancer patients. *Journal of Music Therapy*, 38(1), 51-65.
- Chase, K. M. (2003). Multicultural Music Therapy: A Review of Literature. *Music Therapy Perspectives*, 21(2), 84-88.
- Choi, M. H. (2010). A Pilo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Themes Found During the CARING at Columbia—Music Therapy Program with Refugee Adolescents from North Korea. *Journal of Music Therapy*, 47(4), 380-407.
- Darrow, A., & Molloy, D. (1998).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Music Therapy: An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Educational Curricula, and Clinical Practices in Culturally Diverse Cities of the United States. *Music Therapy Perspectives*, 16(1), 27-32.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Froman, R. J. (2009). Music Therapy Practice with Jewish Peop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usic Therapy Perspectives*, 27(1), 33-41.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 Psychology*, 21(6), 1016-1024.
- George, R. L., & Dustin, E. R. (1988). *Group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New Jersey: Prentice Hall.
- Gooding, L. F. (2011). The Effect of a Music Therapy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on Improving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Social Skills Deficits. *Journal of Music Therapy*, 48(4), 440-462.
- Gowing, A. (2019). Peer-peer relationships: A key factor in enhancing school connectedness and belonging. *Educational and Child Psychology*, 36(2), 64-77.
- Gowing, A., & Jackson, A. C. (2016). Connecting to school: Exploring student and staff understandings of connectedness to school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is process. *The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ist*, 33(1), 54-69.
- Grimmer, M. S., & Schwantes, M. (2018). Cross-cultural music therapy: Reflections of American music therapists working internationally. *The Arts in Psychotherapy*, 61, 21-32.
- Hargreaves, D. J., Marshall, N. A., & North, A. C. (2003). Music educ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psychological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Music Education*, 20(2), 147-163.
- Hartup, W. W. (1992). Peer relations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In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pp. 257-281). Springer, Boston, MA.
- Jespersen, K. V., & Vuust, P. (2012). The effect of relaxation music listening on sleep quality in traumatized refugees: A pilot study.

- Journal of Music Therapy*, 49(2), 205-229.
- Kennedy, R., & Scott, A. (2005). A Pilot Study: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Interventions on Middle School Students' ESL Skills. *Journal of Music Therapy*, 42(4), 244-261.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 Medeiros, D. C., Porter, B. J., & Welch, I. D. (1983). *Children under stress*. Prentice-Hall.
- Merriam, A. P., & Merriam, V. (1964). *The anthropology of music*.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Moreno, J. (1988). Multicultural music therapy: The world music connection. *Journal of Music Therapy*, 25(1), 17-27.
- Radocy, R. E., & Boyle, J. D. (1997). Functional applications of music in contemporary lif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31-64.
- Radocy, R., & Boyle, J. (1988).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Musical Behavior*.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s.
- Rilinger, R. L. (2011). Music Therapy for Mexican American Children: Cultur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Music Therapy Perspectives*, 29(1), 78-85.
- Saarikallio, S. (2011). Music as emotional self-regulation throughout adulthood. *Psychology of Music*, 39(3), 307-327.
- Sloss, C. M. (1996). Cross-cultural music therapy in Canada. *Canadian Journal of Music Therapy*. 4(1), 1-39.
- Stige, B. (2002). *Culture-centered music therapy*.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Thaut, M. H. (2009). **리듬, 음악 그리고 뇌: 과학적 근거와 임상 적용** (차영아 역).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5).
- Topozada, M. R. (1995). Multicultural training for music therapists: An examination of current issues based on a national survey of professional music therapists. *Journal of Music Therapy, 32*(2), 65-90.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3), 465-490.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2), 219-235.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ABSTRACT

The Effects of Percussion Ensemble-centered Music Therapy on the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Change of Multicultural Children

Lee, Ji-In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ercussion ensemble-centered music therapy on the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change in multicultural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ven (7) multicultural children using S local children's center located in City S, Gyeonggi province. They were children from the immigrant families who were born in Korea. After sampling them, they were considered as a single group. The percussion ensemble-centered music therapy was provided in a total of twelve (12) sessions: 50-min. per session twice a week from Aug. 22 to Sept. 26, 2019.

Pretest and posttest, before and after the music therapy program were conducted in multicultural children in the same way with peer relationship scale and Korean Emotional Experience scal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SPSS 24.0 statistical program to identify the difference with Wilcoxon Matched Pair test. To identify the behavior change among subjects, we analyzed the trends in behavior change based on the data of recorded video.

As a result of study, it appear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change in multicultural children ($p < .05$) and the music therapy was effective. To be specific,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support, punishment initiative, intimacy, friendship, and confrontation, sub-areas of peer relationship ($p < .05$).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ub-areas of emotional change ($p < .05$).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behavior change in multicultural children through music therapy program, it appeared that subjects' behavior in peer relationship and positive emotional change showed a positive change in general.

The study findings above suggest that the percussion ensemble-centered music therapy can be an effective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peer relationship and emotional change in multicultural children.

부 록

<부록 1>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부록 2> 프로그램 진행 동의서

<부록 3> 일반적 특성 설문지

<부록 4> 또래관계 척도

<부록 5> 한국 정서경험 척도

<부록 6> 행동관찰 기록지(예시)

<부록 4> 또래관계 척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맞거나 틀린 답은 없으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 답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10~15분 이내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이지인

-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시 해주세요.

문항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					
2	나와 친구들이 의견이 달라 맞설 때가 많다.					
3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 준다.					
4	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족한다.					
5	나는 친구들과 나의 일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6	나는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경우 잘 도와준다.					
7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8	친구들은 나를 괴롭힌다.					
9	친구들은 나를 존중한다.					

10	친구들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해준다.					
11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는 계속 될 것이다.					
12	나는 친구들과 같이 놀 때 즐겁다.					
13	나와 친구들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					
14	친구들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 도와준다.					
15	나와 친구들 사이의 일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친구들과 비밀 이야기를 잘한다.					
17	나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18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19	내가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친구들은 나를 비난한다.					
20	친구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잘 한다고 인정해 준다.					
21	친구들은 나보다 지배적이다.					
22	내가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친구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23	나는 친구들과 즐거운 일이 많다.					
24	나는 친구들과 논쟁을 자주한다.					
25	친구들은 나를 많이 도와준다.					

26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다.					
27	나는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야기를 잘한다.					
28	나는 친구들을 잘 돌보아 준다.					
29	친구들은 나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					
30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많이 꾸짖는다.					
31	친구들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며 찬성한다.					
32	나와 친구들 사이의 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친구들이 결정하는 편이다.					
33	앞으로 나와 친구들과의 관계가 계속 좋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록 5> 한국 정서경험 척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맞거나 틀린 답은 없으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 답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10~15분 이내입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이지인

-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각 문항을 잘 읽고, 제시된 단어에 대한 요즈음 자신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해주세요.

문항 번호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즐거운					
2	행복한					
3	편안한					
4	희망적인					
5	자랑스러운					
6	좋아하는					
7	만족스러운					
8	쾌감을 느끼는					

9	마음 끌리는					
10	홀가분한					
11	후련한					
12	분노한					
13	부아가 나는					
14	두려운					
15	겁나는					
16	신경질 나는					
17	속상한					
18	기가 막히는					
19	상실감을 느끼는					
20	소외감이 드는					
21	짜증나는					
22	억울한					

<부록 6> 행동관찰 기록지(예시)

표적행동	빈도	관찰사항
A	또래관계 5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됨. 그룹원들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동(눈 마주치며 미소 짓기, 양보와 배려하기 등)의 증가와 함께 치료사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며 활동에 참여함. 또래관계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긍정적인 상호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
	긍정적 정서 4	활동이 끝난 후에 혼자서 톤차임을 연주했던 것보다 3명이서 함께 합주를 했던 경험이 더욱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점점 잘 맞는 그룹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음.
B	또래관계 3	점차 그룹 안에서 친밀행동 및 긍정적인 자기표현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어지며, 혼자서 악기를 연주하던 행동에서 다른 그룹원과 같이 앉으며 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악기 연주 활동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행동이 관찰됨. 당일 회기에서 먼저 G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고, 합주 활동 중에도 G에게 가벼운 장난을 치거나 친밀함을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됨.
	긍정적 정서 2	그룹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전 회기들보다 긍정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횟수가 증가함. 또한, 긍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긴 문장으로 음악경험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관찰됨.
C	또래관계 3	그룹 활동에서 자꾸 뒤로 빠지는 행동과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타인의 집중을 받거나 발표를 할 때에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고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웃으며 고개를 젓는 행동)을 보임. 그룹 내 공통점을 찾아보는 활동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여, 그룹원들이 C에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봐”라고 언어적으로 격려와 지지를 하자 C는 머뭇거리는 행동을 보인 후 시도하는 모습이 관찰됨. 그룹원들이 도와주며 한 번의 시도를 수행하게 되자 C는 적극적으로 그룹원들과 이야기를 하며 발표하는 모습이 관찰됨. 톤차임 3화음 연주활동에서는 실수를 하면서 그룹원들과 맞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집중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같은 순서에 연주하지 않는 그룹원을 찾아서 연주 구간을 알려주는 모습이 관찰됨.

	긍정적 정서	2	타인과의 합주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자신의 기분 상태나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관찰됨. 그룹원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던 모습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관찰됨.
D	또래관계	3	활동의 참여도나 집중도에 있어서 새로운 관심이 가거나 흥미가 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짐. 자리를 벗어나거나 갑자기 일어나 다른 자리에 앉는 등 활동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는 모습이 빈번하게 관찰됨. 톤차임 3화음 연주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집중하여 타인과 합주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특히 같은 순서에 연주하는 그룹원을 바라보며 그 동작에 맞추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임.
	긍정적 정서	2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거나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빈번함.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시도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됨. 짧은 문장 단위로 언어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속적인 시도가 필요함.
E	또래관계	4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타인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수용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5학년이지만 6학년 언니 G와 잘 어울리며, 활동 진행 중에 실수를 했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에 G와 F를 질책하는 수준의 언어적 표현이 관찰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통해서 수용하고 이끌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입이 필요함. 톤차임 3화음 연주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며 틀리지 않고, 연주하는 모습이 관찰됨.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관찰되어 자신과 같거나 다른 성향의 다양한 그룹원을 수용하고 받아주며 소통할 수 있도록 그룹 단위의 활동이 E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여겨짐.
	긍정적 정서	3	점차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 표현하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며,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임. 음악이 주는 느낌과 합주 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경험에 대해 상세하게 표현하며, 초기의 어두웠던 얼굴 표정에서 밝고 환하게 웃는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임.

F	또래관계	4	<p>그룹 안에서 늘 혼자 앉아서 활동을 수행하며 다른 그룹원들과 상호교류적인 행동이 1~2회 이하로 관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당일 회기에서는 그룹원을 향해 앉으며 협동하여 3화음 연주를 위해 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이 관찰됨. 음악을 감상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기분상태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을 접하는 것과 동시에 음악적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룹 안에서 수용되고 지지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짐. F의 언어적 제한이 지속적으로 베트남어를 쓰게 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다른 그룹원들과 상호작용을 단절시키는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기표현과 함께 그룹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의 향상이 필요함.</p>
	긍정적 정서	2	<p>이전 회기들에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제한적이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보다는 듣는 입장에서 활동을 참여하고, 대답을 하지 않거나 짧게 “좋았어요”, “재밌어요”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관찰됨. 당일 회기에서는 3명의 그룹원이 협동하여 화음을 만드는 과정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경험에 대해 “같이 다함께 연주하는 활동이 재밌었어요”라고 자세하게 언어적인 표현을 하였음.</p>
G	또래관계	3	<p>이전 회기들에서는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과 눈 마주침을 하지 못하고, 바닥을 보거나 다른 방향을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나 점차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모습이 관찰됨. 그룹원들과 악기 연주를 하고 함께 신호를 맞춰 화음을 연주하는 활동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관찰됨. 또한 따라오지 못하는 그룹원이 보이면, 정확하게 순서에 맞추어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함. 그룹원을 도와주고 이끄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그룹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타인과의 상호교류 및 협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p>
	긍정적 정서	2	<p>자신에 경험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을 하고, 음악과 합주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관찰됨.</p>